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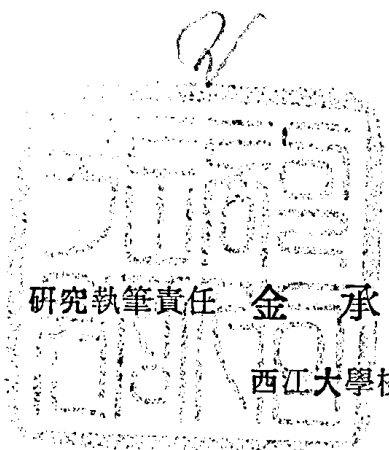
324.3
322.83

수령서 80-12-1629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第三世界와先進國間의經濟問題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hird World and the Advanced Countries—



324.322.83
남북문제
신구제
비동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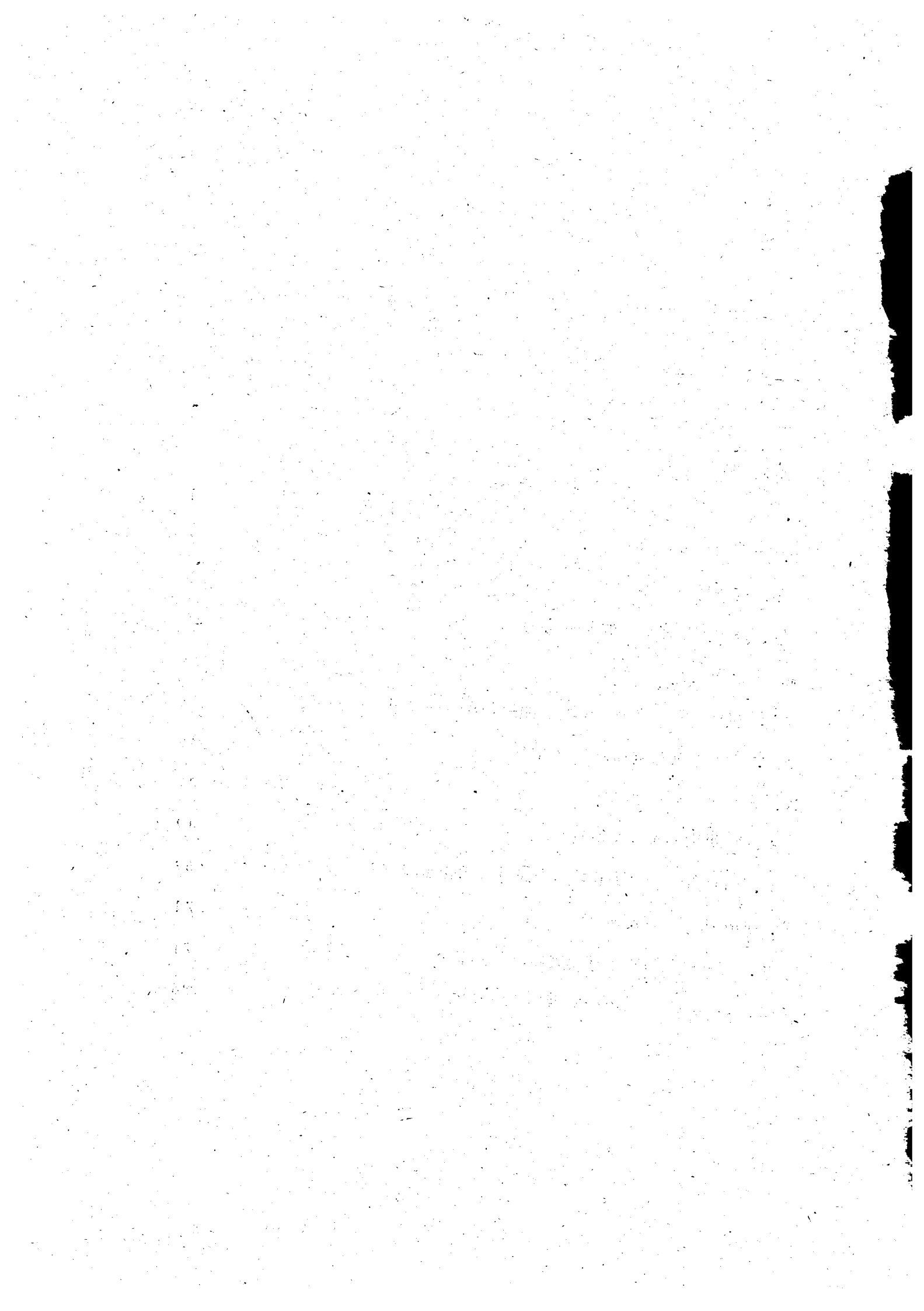
研究執筆責任 金承泰
西江大學校 教授

刊行責任 金容在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要 約	
英文要約	
I. 序	1
II. 南北問題의 背景	4
1. 經濟的인 要因	5
2. 非同盟國과 資源民族主義	26
III. 開途國圈의 反亂	33
1. 國際經濟機構를 통한 開途國의 움직임	33
2. 新國際經濟秩序의 宣言	38
IV. 先進國圈의 對應	49
1. 新現實主義의 抬頭	49
2. 파리의 南北會談과 先進國 頂上會談	59
V. 展望과 關係改善	71
1. 新國際經濟秩序의 実績과 展望	71
2. 韓國과 新國際經濟秩序	86



要 約

最近에 빚어진 世界的인 資源波動은 그것이 미친 政治, 經濟的인 영향이 너무나 지대했다는 點에서 歷史的인 큰 이벤트 였었지만 南과 北의 相互依存의 必要性을 적나라하게 證明시켰고 南北問題解決의 실마리를 새로운 角度에서 보게 되면서 그 重要性이 인정된다.

本 論文은 南側의 新國際經濟秩序의 要求에 對한 背景, 展開過程, 그리고 앞으로의 展望을 개관했고 南北問題와 關聯한 우리나라 位置를 짚길해 보았다.

1959年 9月 美大統領 아이젠하워氏와 蘇聯의 首相 후루시초프氏가 美國 캠프 데이비드에서 相互間의 平和的인 共存路線을 發表하자 50年代의 世界中心 課題였던 東西問題는 일단 背後로 사라지고 60年代以後부터는 南北問題가 前面에 부각된다. 南北問題를 年代別로 區分해서 3期로 分類한다. 二次大戰後 50年代末까지를 第1期로 잡아 開發圈의 立場에서 援助依存時代라 하고 60年代 곧 一次 U.N開發十年을 第2期라 하여 援助보다 貿易으로 經濟成長을 追求하는 時代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第1次 U.N開發十年은 開發圈과 先進圈의 隔差가 오히려 擴大되었고 U.N의 70年代 第2次開發計劃에도 別로 期待를 걸지 못하는 開發圈이 마침내 南北問題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新國際經濟秩序를 宣言

하게 되니 이 70年代를 南北問題의 第3期라 부른다.

2次大戰後 雨後竹筍처럼 솟아난 新生國들의 大部分은 美蘇 冷戰에 휘말리지 않고 東西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非同盟路線을 擇하게 된다. 그러나 東·西 冷戰이 激렸을때는 東西兩陣營의 援助競爭의 惠澤을 보았으나 60年代에 들어 서면서 軍事援助의 削減은 물론 經濟援助方式도 贈與에서 借款方式으로 轉換하게 된다.

西歐 先進諸國은 荒廢한 戰後時代에 美國의 強力한 마샬 플랜의 德으로 戰後復旧를 쉽게 이룩할 수 있었고 敗戰國인 西獨과 日本 역시 높은 經濟成長率을 보이고 있었으나 新生國들만이 經濟的인 惡循環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南과 北의 經濟的인 隔差現象은 마침내 世界的인 이슈로서 U.N舞臺에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U.N總會는 60年代를 第1次 U.N開發十年으로 宣言하고 先進圈 各國이 이에 깊이 參與해 줄것을 要請하게 된다.

그러나 第1次 U.N開發十年은 第39次 經濟社會理事會의 事務總長의 報告書에서 언급된 것처럼 開發國의 成長面에서나 援助資金共與問題에 있어서나 開發國의 對先進國圈에 對한 貿易에 있어서도 모두 開發國의 期待에 失望과 挫折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第1次 U.N開發十年의 実績에 대한 失望은 後進國開發의 새로운 接近方法을 일게 했다. 1965年7月 第39次 經濟社會理事會의 第1次 開發十年에 대한 失望的인 評価를 토대로 U.N은 마침내 린버겐을 위원장으로하는 18名의 民間專門家들로 하여금 第2次 U.N開發十年의 건의안을 報告케한 結果, 70年代 第2次開發十年

간의 具体的인 經濟成長率의 目標, 對開途圈에 대한 對 GNP 援助 比率과 公共開發援助 比率, 그리고 一次 產品輸出收入에 대한 安定化 政策등이 채택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政策措置를 U.N 總會는 強力히 要請하였으나 1975年 現在 先進圈의 對外援助額은 政策目標인 GNP의 1%에서 0.3%로 떨어졌고 第3世界는 繼續 先進圈에 대해서 호소와 失望을 일삼아 오고 있는 것이다.

第3世界는 貧困으로 부터의 脱出이 쉽게 이루어 질수 없음을 알고 모든 根原的인 問題가 現國際經濟秩序의 矛盾에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實際로 現存하고 있는 國際經濟 機構들은 그 組織과 機能이 2次大戰直後에 先進國들에 의해서 그들의 当面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하여 創設된 것이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50年 - 60年代의 새로이 태어난 新生國들은 大部分 獨立運動의 成熟期에 들어 가던 時期였었기 때문에 國際經濟體制는 오늘날의 先進諸國들의 經濟問題解決에 초점을 맞춘 體制일 수 밖에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世界人口의 3分の2를 차지하는 第3世界는 CPEC의 단결과 그들의 原油의 政治道具化以後 더욱 자극된 나머지 現體制의 改革과 더불어 새로운 國際經濟秩序를 要求하기에 이른다. 드디어 第六次 U.N特別總會도 美國을 위시한 先進4個國-仏, 英, 西獨과 日本-의 深刻한 反對와 留保條項의 提議에도 불구하고 投票없이 滿場一致의 型式으로 多數決에 의해 自由와 無差別의 基本理念보다는 開途圈의 利益保障을 制度化하기 위한 新國際經濟

秩序樹立宣言文을 決議해 버린다. 이러한 式의 新秩序의 宣言은 어디까지나 第3世界의 U.N의 多數投票權을 이용한 實力行使이며 이들의 經濟自立을 위한 역지에 가까운 부르짖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瑞典과 핀란드와 같이 南側의 要求에 副應하기 위하여 最善을 다하겠다는 NIEC 宣言文의 趣旨를 절대 支持한다는 國家들이 있는 한 新秩序의 實現이 결코 꿈만은 아닌 것이다. 美國, 日本 그리고 西獨과 같이 NIEC의 宣言을 多數의 橫暴라고 비난하던 國家들도 第7次 U.N特別總會以後 開途國의 意思를 무시할 수 없다는 反省을 보여 왔고 實際로 實質的인 合意를 目標로 努力하기 시작한다.

不幸하게도 여러차례에 걸친 파리 南北會談과 先進國 頂上會談은 結果적으로 南側이 가지고 있는 自然資源 그리고 北側이 가지고 있는 開發資源과 技術은 相互間的 복지와 發展을 위해서 交換되어야 하며 또 서로 協助해야 한다는 相互依存性을 인정하는데 그쳤을 뿐 南側의 一次產品問題, 援助問題, 其他 貿易問題등은 아직도 先進圈의 協助가 不足한 처지다.

우리나라는 NIEC에 關한 한 두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格이라 하겠다.

우리는 賦存資源이 거의 없어 重化學工業化 過程을 通하여 産業構造를 高度化 시키고 있는 段階에서 石油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自然資源을 第3世界로 부터 輸入하여야 하므로 우리나라는 開途圈에 속한다기 보다 先進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反面에

우리는 先進國의 新保護貿易主義를 타도하고 그들의 斜陽産業과 우리에게 比較優位가 있는 商品에 對해선 NIEO가 要求하는 것처럼 先進國들의 産業構造改編을 開發國圈과 같이 主張하여야 하기 때문에 開發圈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특수한 사정을 勘案해 볼때 新秩序의 要求 事項들에 對해서 選別的인 對峙가 必要하고 北傀와 第3世界에 있어서의 政治·外交的 角逐戰을 벌리고 있는 이마당에 우리들의 우세한 經濟交流를 통해서 가일층 政治·外交關係를 돈독히 해야할 것이다.

between the end of the World War II and the near the end of the 50's. This period is called foreign aid dependent period from the view point of the third world. The Next period is the 60's, the first U.N. development decade. Here, the third world shift their basis for development foreign aid to foreign trade. And the third period is the 70's, the second U.N. development decade.

However the result of the first U.N. development decade was a complete disappointment. Third world is as just beginning to realize that under the prevailing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othing could work in their favor. Just about then the '73 oil crisis surfaced by OPEC nations became such a successful example for the rest of the primary goods producing countries that the oil crisis actually became the igniting flame for the uniting force of the third world countries together. And the third world requested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during the Sixth U.N. Special Assembly meeting. In spite of the strong reservations and deterring denouncements by the U.S.A., W. Germany, France, Japan, and the U.K., an unanimous resolution for passing the NIEO was adopted. This sort of passage was condemned by many advanced countries for the reason of the dictatorship exercised by the marority. But there were few

other countries which urged the NIEO to be supported wholeheartedly. Even though these are only few, it indicates the dream of the NIEO to be accepted by the third world is not dead.

In fact, ever since the seventh U.N. Special Assembly meeting, the North has shown a remarkable change of attitude. They have become more conducive to positive discussion with the South. There were several Paris North-South meetings and many meetings by the leading nations of the North in order to resolve whatever strains exist between North and South. However these meetings have shown rather disappointing results in so far as aid and trade are concerned. But they have come up with some good improvements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prices as well as total export receipts of primary goods. The establishments of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will take much effort and understanding by both sides and it will take a long time.

With regard to NIEO, Korea is in a rather puzzling situation. As energy and resource importers, she is in the same boat as the North is. As a member of the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she is getting a hard body-check from the North. Accordingly, so far as NIEO's claims are concerned, Korea

should act carefully and selectively in order not to offend either the North or the South. In view of our special circumstance, our superior advantage over North Korea with respect to the trade volume with the third world should be used for the strong political ties with them.

I . 序

2次大戰이 끝난뒤 自由, 共產兩陣營의 對立으로 東西問題가 世界의 中心的인 關心의 대상이 되었었지만 60年代를 들어서면서 北方의 先進工業國과 南方의 後進開發國들 간의 經濟問題에 있어서의 對立이 表面化되니 이를 南北問題라고 한다.

50年代와 60年代를 통하여 世界到處에 나타난 新生獨立國家들의 대부분이 그전의 宗主國들의 도움을 받아 國際政治의 무대에 當당한 會員으로 加入하여 宗主國과 1對1의 投票權을 國際聯合에서 誇示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新生國들은 獨立 그 자체가 經濟的인 隸屬關係에서의 獨立 역시 보장하는것이 아니라 는 것을 冷酷한 現實속에 發見하게 된다. 이들 新生國들은 貧困으로 부터의 脫出이 簡單히 이루어질수 없음을 直視할 때 이것이 資本과 技術의 결핍 또는 開發意慾의 不足이라기 보다도 根源的으로는 國際經濟秩序에 矛盾이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사실 現存하고 있는 國際經濟機構들은 그組織과 技能이 2次大戰 直後에 先進國들에 의해서 그들의 當面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하여 創設된 것이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50-60年代의 새로 태어난 新生國들은 대부분 獨立運動의 成熟期에 들어가던 時期였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國際經濟體制는 先進諸國들의 問題解決에 초점을 맞춘 體制일수 밖에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世界人口의 3分の 2를 차지하는 第三世界는 OPEC의 단결과 그들의 原油의

政治道具化 以後 더욱 자극된 나머지 現存体制의 改革과 더불어 새로운 國際經濟秩序를 要求하기에 이른다. 드디어 第六次 UN特別總會는 美國을 위시한 先進4國-仏, 英, 西獨과 日本-의 深刻的 反對와 留保條項의 提議에도 불구하고 投票없이 滿場一致의 形式으로 多數決에 의해 自由와 無差別의 基本理念보다는 開途圈의 利益保障을 制度化하기 위한 新國際經濟秩序樹立 宣言文을 決議해 버린다. 그러나 이러한식의 新秩序의 宣言은 어디까지나 第三世界의 UN의 多數投票權을 이용한 實力行使이며 이들의 經濟自立을 위한 억지에 가까운 부르짖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先進諸國들의 호응 없이는 新秩序의 宣言만으로는 새로운 經濟秩序가 이루어 질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体制의 構築이란것은 많은 理解, 寬容 그리고 忍耐를 바탕으로한 南北圈間의 協商을 必要로 하며 世界의 政治環境만이 그런대로 맞는다 해도 10여년 이상 걸릴것이 分明하다. 우리나라는 賦存資源이 거의없는 中進工業國으로서 에너지를 위시한 거의 모든 資源을 第三世界로부터 輸入해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經濟는 開途圈型이라기 보다 先進圈型에 가깝고 南北問題에 관한 한 先進國들과 어느 程度 步調를 맞추어야 하는 立場에 서있다.

最近 점차로 國際資源의 重要性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은 그만큼 南北問題自體의 重要性을 증명하는 것이다. 南國圈이 産出하는 原資材와 其他 産品을 北國圈이 사주어야 하고 世界人口의 3分の2를

가지고 있는 南國圈의 工產品市場을 必要로 하는 相互依存性은 날로 더욱 심해질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南北問題는 이 地球가 항구적으로 解決해야할 가장 重要하고 深刻한 課題인 것이다.

本論文은 南側의 新國際經濟秩序를 要求하게된 背景, 展開過程 그리고 展望을 알아보고 우리가 선택해야할 立場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南北問題의 背景

1959年 9月 아이젠하워 美大統領과 蘇聯首相 후루시초프의 캠프 데이비드 會談이 實現된 以後 美·蘇 關係는 冷戰으로부터 平和共存路線으로 옮겨가게 된다. 따라서 50年代의 世界的 中心課題였던 東西問題가 일단 背後로 사라지자 60年代以後부터 南北問題가 前面에 나서기 시작한다. 2次大戰後 雨後竹筍처럼 솟아난 新生國들의 大部分은 美·蘇 冷戰에 휘말리지 않고 東西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非同盟路線을 擇하게 된다. 그러나 東·西 冷戰이 激化했을 때는 東西 兩陣營의 援助競爭의 惠澤을 보았으나 60年代에 들어서면서 軍事援助의 削減은 물론 經濟援助方式도 贈與에서 借款方式으로 轉換하게 된다.

西歐 先進諸國은 荒廢한 戰後時代に 美國의 強力한 마셜·플랜의 덕으로 戰後復舊를 쉽게 이룩할 수 있었고 敗戰國인 日本과 西獨 역시 높은 經濟成長率을 보이고 있었으나 新生國들만이 經濟的으로 惡循環 사이클의 쇠사슬을 벗어나지 못하여 南과 北의 經濟現象의 隔差는 마침내 世界的인 이슈인 南北問題로서 登場하게 된다. 따라서 U.N總會는 1960年代를 一次開發年代로 宣言하고 先進圈 各國이 開發圈開發에 參與할 것을 要請하게 된다.

南北問題를 年代別로 區分해 흔히 3期로 分類한다. 2次大戰後 50年代末까지를 第1期로 잡아 開發圈의 立場에서 援助依存時代라 하고, 60年代 곧 一次開發年代를 第2期로 하여 援助보다 貿易으로

經濟成長을 追求하는 時代라 할수 있다. 그러나 一次開發年代는 開發圈과 先進圈의 隔差가 오히려 擴大되었고 UN의 70年代 二次開發計劃에도 별로 期待를 걸지 않았던 開發圈은 마침내 南北問題의 第3期라고 부를수 있는 70年代에 新國際經濟秩序를 要請하기에 이른다.

本章에서는 南北問題의 背景으로서 開發圈이 團合하여 UNCTAD에서 先進圈에 強力히 對抗하기 直前까지의 經濟的인 諸般要因들을 記述해보고자 한다.

1. 經濟的인 要因

1961年 UN總회는 1960年代를 一次開發의 10年(Development Decade I 또는 DD1)¹⁾으로 決議하였다. 全世界 人口의 3分の2를 차지하는 開發國을 貧困의 惡循環에서 解放시키려고 하는 共產圈을 除外한 世界各國의 意志인 것이다. DD1의 主要 數量的인 目標을 보면 60年代의 期間中 GNP의 年平均成長率을 5%로 정했고 이를 達成시키기 위한 投資財源으로서 先進各國들은 最小限 그들의 GNP의 1%를 開發圈에 援助資金으로 移轉할 것을 決議했다. 그러나 DD1의 実績은 目標한 GNP 成長率이 대체로 達成되어 成功的인 듯 보였으나 이것은 주로 開發國中에서도 高度成長國인 韓國, 브라질,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와 싱가포르등 數 個國의 6.9%라는 높은 實質成長에 힘입은 것으로, 나머지 90%

以上の 開途國들은 모두 이를 幻想的이라고까지 評價하여, 第三世界의 全幅的인 歡迎과 支持로 進水되었던 DD1은 大多數 開途國들에게 失望을 안겨다 주었다.

DD1의 成果로 開途圈의 年平均 GNP 目標成長率은 大體로 達成되었으나 内容面에서 보면 90%以上の 開途國들은 目標한 成長率에 未達하였다. 表1에서 볼 수 있듯이 DD1期間中 開途國 全體의 5% 成長率의 達成은 브라질,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그리고 韓國 등 6個國의 高度成長國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外의 開途國 즉 世界人口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地域이 目標未達에 그친 것이다. 1人當 GNP를 70年 基準으로 보면 先進工業國들은 平均 \$ 2,790이며 開途國은 尙작 \$ 210 이었다. 더우기 1人當 GNP의 成長率을 살펴보면 先進圈의 경우 3.3%의 年平均 成長率에 1人當 每年 \$ 103.2씩 增加하였지만 開途圈은 2.5%의 成長率에 \$ 5.2씩 밖에 增加하지 않았으니 第39次 經濟社會理事會의 事務總長이 提出했던 "中間地點에 온 UN 開發年代 (UN Development Decade at Midpoint)"라는 報告書가 指摘했듯이 과연 南北隔差는 深化擴大되었고 開途圈의 爲政者들이나 國民들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希望은 점점 어두어만 갔다.

DD1中에 建議되었던 開途圈에 對한 援助資金의 경우도 援助額의 絶對量은 擴大되었다고 할수 있겠으나 UN決議에 의한 總援助對 GNP 比率 1%와 公共開發支援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比率 0.7%의 実績은 改善이 아닌 改惡으로 나타났다고 할

<表1> 實質總生產成長 與 人口增加 推移 (1960 ~ 1970)

	人 口 1970 (百万人)	GNP 1) 1970 (10億\$)	1 人 当 GNP 1970(\$)	人口增加率 1960~1970 (年平均%)	実績GNP成長率 1960~1970 (年平均%)	1 人 当 GNP 成 長 率 (年平均%)
先進工業國	757	2,112	2,790	1.2	4.9	3.7
東歐社會主義國	346	500	1,440	1.1	6.7	5.5
開發途上國	1,674	354	210	2.5	5.1	2.5
地 域 別	開發國中	構 成 費				
아프리카	19.5	14.9	160	2.6	4.4	1.8
中南美	16.1	40.7	530	2.9	5.5	2.6
西아시아	4.1	7.9	410	3.1	7.5	4.4
東南아시아	60.1	36.2	125	2.5	4.6	2.1
產油開發途國	15.0	15.6	220	2.8	5.3	2.4
非產油開發途國	85.0	84.4	210	2.4	5.1	2.6
主要工業品輸出開發途國	10.9	24.3	470	2.9	6.9	3.9
高度成長國 2)	43.4	29.0	140	2.3	4.0	1.7
其他 3)	30.7	31.1	215	2.5	4.9	2.3
其他 開發途國						
所得水準別(1970, 1人当GNP)						
\$ 400 以上	7.5	27.6	775	2.6	5.8	3.1
\$ 251 ~ \$ 400	14.9	22.7	320	2.8	5.9	3.0
\$ 151 ~ \$ 250	9.1	8.4	195	2.5	5.1	2.5
\$ 150 以下	53.5	25.7	100	2.4	3.8	1.4
그중: 高人口國	40.0	19.9	105	2.3	3.8	1.5
主要最貧國	8.7	3.6	90	2.4	3.5	1.1
其他	4.8	2.2	100	2.9	3.6	0.7

資料: UNCTAD, TD/B/429/Rev, 1/Add.1 pp.68 ~ 69

註: 1) 1965年 不變價格 2) 브라질,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韓國, 싱가포르 3) 아르헨티나, 이집트, 印度, 파키스탄

수 있다. 즉 DAC (OECD의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²⁾의 1970年 報告에 의하면 加盟 16個國 平均으로 볼 때 1960 ~ 69年間 對 GNP 比率은 0.89%에서 0.74%로 ODA의 比率 역시 0.52%에서 극히 낮은 0.36%로 오히려 惡化一路에 있음이 밝혀진다. 이러한 開發支援 規模의 相對的 停滯에 對해 세가지 要因이 集約될수 있는데 첫째로는 東西間의 緊張緩和 즉 冷戰이 平和共存으로 轉換됨에 따라 非同盟諸國에 對한 競争的인 援助가 大幅減少되었다는 點, 둘째로 美國, 프랑스, 이태리 등 先進諸國의 國內 Inflation과 經濟力弱화에 따른 對外 援助力의 減退, 셋째로 開發圈의 對外債務의 累積과 이들의 經濟全般의 停滯現象을 勘案 先進圈에서는 開發圈의 債務 償還能力을 意識하게된 點을 들수 있다. 事實上 表 4는 開發國의 公共債務만 包含하고 있지만 先進開發圈間의 協力形態가 借款方式으로 轉換되면서 開發圈의 對外債務負擔은 急增하였고 이 負擔은 1961 ~ 69年間 약 3倍로 增加하였다. 만일 여기에 表 2에서 볼수 있는 短期輸出信用의 同期間中 5億달러에서 20億달러로 急增한 額數까지 包含하면 開發圈들의 對外債務는 莫大한 額數가 되는 것이다. 開發圈의 1人當 GNP의 絶對額數의 低調한 水準은 GNP成長率을 加速化 시킬수 있는 投資財源의 不足狀態를 意味한다. 여기에 必要視되는 外援마저 貸与條件의 惡化, ODA 比率의 下落 등으로 充分히 確保되지 못했으며 外債元利金償還의 根本財源이 되는 輸出收入의 先進圈에 比한 增加鈍化는 開發國의 國際收支를 더욱 惡

<表 2> DAC加盟國の形態別 經濟協力実績推移 (純額)

(單位: 百万달리)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I. 公開發支 (ODA)	4,665	5,197	5,442	5,770	5,957	5,916	6,001	6,552	6,316	6,610
兩國間贈與	3,692	3,991	4,020	3,940	3,806	3,714	3,701	3,578	3,344	3,250
兩國間開發	439	685	911	1,463	1,746	1,854	1,966	2,238	2,289	2,312
借入國際機構 對立與	534	521	511	367	405	348	334	736	683	1,047
其他政府 經濟協力	300	946	542	245	-41	283	430	507	731	582
II. 兩國間協力	233	716	527	248	-34	278	377	488	741	597
多國間協力	67	230	15	-3	-7	5	53	19	-10	-15
III. 民間經濟協力	3,150	3,106	2,453	2,557	3,729	4,121	3,959	4,381	6,380	6,478
直接投資	1,767	1,829	1,495	1,603	1,572	2,468	2,179	2,105	3,045	2,804
兩國間借款	633	614	147	327	837	655	480	800	972	1,277
多國間借款	204	90	239	-33	461	247	175	469	767	419
輸出信用	546	573	572	660	859	751	1,124	1,007	1,596	1,978
合計	8,115	9,249	8,437	8,572	9,645	10,320	10,390	11,440	13,427	13,670

資料: OECD, Development Assistance, 1971

<表 3>

DAC加盟國 經濟協力実績의 對 GNP 比率

單位：%

	1960		1964		1969	
	總額	ODA	總額	ODA	總額	ODA
오스트레일리아	0.38	0.38	0.51	0.48	0.74	0.56
오스트리아	0.09		0.25	0.14	0.65	0.12
벨기에	1.59	0.88	1.04	0.45	1.12	0.51
캐나다	0.37	0.19	0.31	0.17	0.50	0.31
덴마크	0.64	0.09	0.35	0.11	1.13	0.41
프랑스	2.15	1.38	1.46	0.89	1.24	0.69
西獨	0.88	0.33	0.68	0.44	1.33	0.39
이탈리아	0.85	0.22	0.43	0.09	1.03	0.16
日本	0.57	0.24	0.36	0.15	0.76	0.26
네델란드	2.11	0.31	0.69	0.28	1.36	0.53
노르웨이	0.23	0.11	0.36	0.15	0.78	0.31
포르투갈	1.46	1.45	1.83	1.83	1.74	0.44
스웨덴	0.36	0.05	0.36	0.18	0.77	0.44
스위스	1.83	0.04	0.86	0.07	0.64	0.16
英國	1.22	0.56	0.99	0.53	0.97	0.39
美國	0.75	0.53	0.74	0.57	0.49	0.33
DAC 平均	0.89	0.52	0.75	0.49	0.74	0.36

資料：OECD, Development Assistance, 1970

<表 4 > 開發途上國의 對外債務殘額 및 償還額

單位：10 億달러

	債務殘額	債務償還額
1961	21.6	2.3
64	33.2	3.1
65	37.5	3.3
66	42.5	3.8
67	48.4	3.9
68	54.8	4.6
69	60.9	5.2

資料：OECD, Development Assistance, 1973

化시킨 것이다.

開發途上國이 新國際經濟秩序를 要求하게 된 主要한 理由中 하나는 援助보다 交易을 通하여 經濟自立을 이룩하겠다는 新生國들의 꿈이 점차 60年代를 거치는 가운데 어두어 졌다는데 있는 것이다.

19世紀의 自由貿易理論의 根本趣旨은 自由貿易을 通해 世界資源의 効率的인 配分은 물론 貿易에 參加하는 모든 나라들은 富國이든 貧國이든 모두 利得을 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問題는 交易國中의 一部가 利益을 더 많이 거두어 交易相對諸國間의 貿易은 물론 結果적으로 所得隔差의 擴大를 誘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貿

易에 있어서의 開途圈의 地位弱化는 世界輸出占有率의 減少와 交易條件의 惡化라는 側面에서 찾아볼 수 있다. 60년부터 70년까지 世界輸出總額은 年平均 9.4%의 伸張率을 記錄하여 10年間 127,500 百萬달러에서 312,000 百萬달러로 약 2.4倍 增加하였다. 그러나 同期間中에 先進諸國이 年平均 10.1%의 伸張率을 보인데 대해 開途國들은 年平均 7.1%로 뒤졌다. 마찬가지로 世界輸出의 占有率에서도 이러한 推移의 反映을 볼 수 있다. 世界輸出總額을 100으로 보았을 때 先進國은 1960年의 66.9% 占有率에서 1970년에는 71.8%까지 提高되었으나 開途圈은 21.4%에서 오히려 17.7%로 낮아졌다. 이와같이 開途圈의 輸出占有率이 下落하게 된 가장 重要한 理由는 開途國들의 輸出品들이 主로 一次產品이기 때문이다. 一次產品은 商品의 性格上 價格彈力度가 比較的 非彈力的이므로 世界需要나 供給의 조그만 變動에도 輸出收入의 變動幅이 極甚하여 國際收支에 構造的으로 不安한 影響을 恆時 끼쳐주며, 또한 工產品에 比해 所得彈力度가 낮아 世界經濟의 成長으로부터 創出되는 需要가 적기 때문에 開途圈의 輸出商品構造가 工產品化되기 前에는 世界總輸出額에 對한 占有率이 계속 減少될 趨勢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趨勢는 表 6에 보여주고 있는 占有率減少推移에서도 證明되었으며 表 5에서도 60~70年間 世界輸出市場에서 工業製品輸出額의 年平均 增加率이 11.6%인데 반해 一次產品輸出額의 增加率은 2分の1을 조금 넘는 6.5%밖에 못 미치고

<表 5 >

世界貿易推移

(輸出額, 輸出量, 輸出單價: 1960~70年)

區分 年度別	輸出指數						世界工業 生產指數
	輸			出			
	世界 輸出	先進國 輸出	開發途上國 輸出	工業製品 輸出 (1)	一次產品 輸出 (1)	世界 輸出量	
指數 (60年:100)							
70年	246	261	199	299	188	217	113
71年	274	291	218	—	—	229	118
年間伸張率 (%)							
60~70年	9.4	10.1	7.1	11.6	6.5	8.1	1.2
60~65年	7.8	8.4	6.0	9.9	5.3	7.0	0.6
65~70年	11.1	11.8	8.3	13.3	7.8	9.2	1.9
67~70年	13.7	14.4	10.9	16.0	10.3	10.7	2.5
70~71年	11.1	11.5	9.2	—	—	5.5	4.4

資料: OECD, "Policy Perspectives for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Relation", 1971

<表 6 >

60年代의 世界輸出伸張 推移

單位：百万달러 f.o.b

	1960	1963	1965	1967	1969	1970
世界	127,500 (100.0)	153,700 (100.0)	186,400 (100.0)	214,500 (100.0)	272,600 (100.0)	312,000 (100.0)
先進 ¹⁾ 國	85,300 (66.9)	103,500 (67.3)	128,300 (68.8)	149,700 (69.8)	193,900 (71.1)	224,000 (71.8)
開發國	27,300 (21.4)	31,500 (20.5)	36,400 (19.5)	39,900 (18.6)	49,000 (18.0)	55,100 (17.7)
共產圈	14,920 (11.7)	18,660 (12.1)	21,700 (11.6)	24,900 (11.6)	29,700 (10.9)	32,900 (10.5)

資料：UN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1961, 1965, 1972 ~ 73

註：1) 美國, 캐나다, 西歐諸國, 日本, 오스트레일리아, 뉴우지일
랜드, ()内는 구성비

開發途上國輸出商品構造

<表 7 >

單位：百萬달리，%

	全 体 (SITC 0~9)	食料(0,1)	原料(2,4)	燃料(3)	化学製品(5)	機械類及輸 送裝備(7)	其他工業製品 (6,8)
1962	29,060 (100.0)	8,500 (29.2)	7,250 (24.9)	8,870 (30.5)	350 (1.2)	260 (0.9)	3,650 (12.6)
1965	36,490 (100.0)	10,380 (28.4)	8,190 (22.4)	11,310 (31.0)	510 (1.4)	395 (1.1)	5,490 (15.0)
1967	39,750 (100.0)	10,610 (26.7)	7,830 (19.7)	13,500 (34.0)	520 (1.3)	570 (1.4)	6,560 (16.5)
1969	48,300 (100.0)	11,530 (23.9)	9,290 (19.2)	16,200 (33.5)	720 (1.5)	990 (2.0)	9,380 (19.4)
1971	59,606 (100.0)	13,037 (21.9)	10,044 (16.8)	23,807 (39.9)	1,004 (1.7)	1,532 (2.6)	9,858 (16.5)
1973	109,953 (100.0)	21,209 (19.3)	17,063 (15.5)	43,509 (39.6)	1,965 (1.8)	4,588 (4.2)	20,918 (19.0)
1975	210,007 (100.0)	29,519 (14.1)	19,506 (9.3)	124,584 (59.3)	3,296 (1.6)	6,861 (3.3)	25,194 (12.0)

資料：UN, Monthly Business Statistics, 1968.3, 1971.7, 1977.5

先進國間 貿易斗 輸出商品 構造

<表 8>

	全 体 (SITC ₆₀ ~9)	食料(0+1)	原料(2+4)	燃料(3)	化学製品(5)	機械類 輸送 裝備(7)	其他工業製品 (6,8)
1962	69,330	10,090 (14.5)	10,340 (14.9)	3,140 (4.5)	4,760 (6.9)	18,720 (27.0)	21,260 (30.7)
1965	95,740	13,150 (13.7)	11,720 (12.2)	3,630 (3.8)	7,150 (7.5)	27,280 (28.5)	31,010 (32.4)
1967	111,540	14,450 (12.9)	12,190 (10.9)	4,110 (3.7)	8,740 (7.8)	35,470 (31.8)	36,080 (32.3)
1969	148,590	16,570 (11.2)	14,620 (9.8)	4,950 (3.3)	11,970 (8.1)	49,790 (33.5)	49,430 (33.3)
1971	193,016	21,329 (11.1)	16,816 (8.7)	7,550 (3.9)	15,024 (7.8)	67,784 (35.1)	61,642 (31.9)
1973	311,956	37,326 (12.0)	29,321 (9.4)	12,684 (4.0)	25,508 (8.2)	104,655 (33.5)	98,692 (31.6)
1975	402,820	47,267 (11.7)	31,970 (7.9)	25,266 (6.3)	35,307 (8.8)	135,279 (33.6)	121,598 (30.2)

資料：<表-7> 同 一

있는 것이다. 이처럼 開途國은 一次產品이 總輸出額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貿易收入에 있어서 問題가 露呈되어 왔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工產品 역시 先進圈의 關稅 및 非關稅障壁이 높아져 開途圈의 工業化를 위한 施設投資의 沮止要因이 되었으며, 특히 自國產原料를 加工하는 工業化政策에 制動을 거는 結果를 초래한 것이다. 近者에 와서 關稅障壁은 漸次 緩和되는 반면, 數量의 制限, 差別待遇, 品質規制, 保健衛生上の 嚴格한 基準設置등의 非關稅障壁은 더욱 더 強化되는 趨勢를 보여 왔다. 開途圈의 工業化過程에서의 初期 開發製品들인 加工農産物, 纖維製品, 신발, 皮革製品, 電氣 및 電子製品 등에 對하여 先進諸國이 讓歩함이 없이 繼續的으로 開途圈의 自發的 輸出調整을 要求하는 政治, 經濟的 壓力때문에 이들 製品의 對先進國 輸出이 苦戰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表9에서 알수 있다. 化學製品, 機械類, 輸送裝備 그리고 其他 工業製品들을 合한 工產品에 對한 開途國들의 對 先進圈 輸出商品構造를 보면 輸出總額中の 比重이 1965년에 16.2%에서 1975년에는 14.9%로 下落했음이 나타난다. 一次產品이 開途諸國의 外貨稼得中 80%를 차지하므로 一次產品의 輸出價格과 對工產品 交易條件의 變化推移는 世界貿易에 參與함으로써 얻는 開途圈의 貿易利益의 變化推移이기도 하다. 表10은 商品別 輸出價格指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1963年度를 100으로 했을때 世界全商品의 價格은 1958年の 100에서 1970년에는 113으로 13%의 增加幅을 記錄했다. 이 內容을 分析해 보면 先進國은 99에서 114

<表9>

開發途上國의 對先進國 輸出商品 構造

單位：百萬달리，%

	全 体 (SITC 0-9)	食 料 (0, 1)	原 料 (2, 4)	
1962	20,770(100.0)	6,260(30.1)	5,450(26.2)	
1965	26,110(100.0)	6,290(27.8)	6,130(23.5)	
1967	29,260(100.0)	7,630(26.1)	5,940(20.3)	
1969	35,760(100.0)	8,350(23.4)	6,900(19.3)	
1971	43,304(100.0)	9,489(21.9)	7,078(16.3)	
1973	80,306(100.0)	15,107(18.8)	11,957(14.9)	
1975	149,710(100.0)	18,043(2.1)	13,536(9.1)	
	燃 料 (3)	化学製品 (5)	機械類 및 輸 送裝備 (7)	其他工業製品 (6, 8)
1962	6,140(29.6)	185(0.9)	60(0.3)	2,610(12.6)
1965	8,370(32.1)	240(0.9)	115(0.4)	3,880(14.9)
1967	9,280(35.1)	235(0.8)	270(0.9)	4,830(16.5)
1969	12,560(35.1)	310(0.9)	510(1.4)	7,020(19.6)
1971	18,222(42.1)	459(1.1)	763(1.8)	7,096(16.4)
1973	33,526(41.7)	887(1.1)	2,836(3.5)	15,543(19.4)
1975	95,241(63.6)	1,441(0.9)	3,535(2.4)	17,395(11.6)

資料：<表-8>과 同一

註：()内는 構成比

<表 10>

商品別 輸出價格指數 (1958 ~ 1970)

(美國 달러)

(1963 = 100)

	1958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全商品	100	103	105	105	104	107	113
선진국	99	103	105	105	104	108	114
개발도상국	105	102	104	103	103	106	109
一次産品	103	103	104	101	100	103	108
선진국	97	105	107	103	100	104	109
개발도상국	108	102	102	99	99	103	106
식량	103	103	105	104	101	104	111
선진국	96	105	108	107	102	104	109
개발도상국	111	101	102	100	101	105	115
非食糧	99	103	104	96	96	101	101
선진국	98	103	106	98	96	101	103
개발도상국	100	102	100	93	94	100	99
鉱物	108	104	104	103	102	104	111
선진국	101	106	107	105	104	109	130
개발도상국	111	103	103	102	102	102	104
非錢金屬	92	135	156	142	150	175	180
선진국	96	129	144	135	142	164	170
개발도상국	87	146	177	156	165	197	197
工産品	97	103	106	107	107	110	117
벨기에-룩셈부르크	105	103	105	105	103	107	113
캐나다	107	104	106	108	114	119	127
프랑스	102	105	108	107	109	110	113
西獨	91	102	104	104	102	107	116
이탈리아	106	100	99	99	99	103	108
日本	107	98	97	101	101	106	112
네델란드	97	104	104	103	101	103	106
스웨덴	95	104	106	109	111	114	124
스위스	92	106	112	115	120	122	127
영국	93	105	110	110	104	107	115
미국	96	104	107	110	113	118	124

資料 : UN, Yearbook of International & Trade Statistics, 1972 ~ 73

註 : 共產圏 除外

로 15% 引上한 반면에 開途國은 105에서 109로 고작 3.8% 引上에 그치고 만다. 이것은 先進國의 4分の 1에 지나지 않는 不振한 引上幅인 것이다. 開途國의 一次產品의 경우를 보면 同期間中 108에서 106으로 減少했으나 先進國의 工產品 指數는 97에서 117로 20%의 上昇幅을 記錄함을 볼수 있다. 이러한 開途國의 指數의 惡化는 輸入單價指數를 勘案한 開途國의 交易條件의 推移에서도 反映이 되고 있다. 表 11에서 石油를 除外한 指數를 보면 예상한대로 先進國은 同期間中 3% 引上을 記錄했으나 非産油開途國들은 오히려 2% 減少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一次產品은 前述한바와 같이 需要와 供給이 短期的으로 非彈力的이기 때문에 價格, 數量 그리고 總輸出金額이 短期的으로 不安한 가운데 所得彈力度도 工產品에 比하여 非彈力的이므로 長期的으로도 需要의 增加는 느린 반면에 供給은 多少의 技術進步로서도 相當한 差異를 가져올수 있고 一部 先進國의 自國內 一次産業의 保護政策, 資源節約型 技術開發 등의 理由로 因하여 그 增加速度가 항시 빠르기 때문에 輸出價格指數는 長期的으로 惡化一路의 傾向을 보여온 것이다. 따라서 貿易을 통한 世界所得의 分配는 先進國에 有利하게 展開되어 왔고 이로 말미암은 貿易의 不均衡은 開途國의 貿易收支 赤字幅을 날로 擴大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었다. 開途國들은 이렇게 擴大되는 赤字幅을 借入條件이 有利한 公共分野의 援助(O DA)로 補填할 수 있을 줄 期待하였으나 DD1의 UN決議였던 先進國 GNP의 1%의 援助는 70년에 이르러

交 易 條 件 推 移 1)

<表-11>

(1963 = 100)

	1961	1962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先進國	99	100	100	100	100	101	101	101	102
北美	101	102	99	101	102	103	104	104	103
西歐諸國	99	101	100	100	100	101	101	101	102
EEC	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2
EFTA	101	103	101	103	103	103	104	104	104
기타유럽	91	97	97	102	103	106	102	100	98
남아연방	100	98	102	99	97	96	99	99	98
일 본	103	102	97	94	93	96	98	102	103
오세아니아	88	89	103	95	97	90	88	88	83
開發途上國	102	98	101	99	101	100	101	101	100
石油除外	100	97	103	101	104	102	103	106	106
아프리카	103	99	102	100	104	104	105	108	103
아시아	103	102	98	98	99	98	100	100	99
中東	102	103	96	97	95	96	97	92	89
石油除外	105	108	95	95	96	99	97	95	94
기타아시아	104	102	99	99	100	99	100	102	104
라틴아메리카	97	92	106	103	103	100	99	100	101
石油除外	93	90	109	105	107	102	102	104	106

資料 : <表-10>과 同一
수출단가지수
수입단가지수

註 1) :

0.74%, ODA 역시 0.7%의 목표가 0.36%에 그치는 바람에
富國과 貧國間의 所得隔差는 더욱 擴大되었고 더불어 DD1의 決
議에 對한 開發國의 期待는 失望과 挫折로 終結되었다.

이러한 第一次 UN開發 10年의 進陟実績에 對한 失望으로 後進
國開發의 새로운 接近方法의 必要性이 일기 시작했다. 1965年
7月 第39次 經濟社會理事會의 DD1에 對한 失望的인 評價를 토
대로 UN 經濟理事會 總會에서는 經濟開發의 進陟狀況을 体系的
으로 評價하기 위한 開發計劃委員會(Committee for Development
Planning)의 設立을 決議했다. 經濟社會理事會의 諮問機關인
18名의 民間專門家로 構成된 開發計劃委員會는 1967年 2차례의
會合結果 第二次 UN開發 10年(DDII)의 憲章을 UN總會가 採擇
해줄 것을 暫定的으로 勸告했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³⁾

① 開發國의 所得과 福祉를 向上시키는 것은 全世界的인 全般的
關心事이며 이를 위해 開發圈과 先進圈의 一致된 行動이 必要하다.

② 最小限의 몇가지 目標만은 期必코 達成하도록 하는 것이 世
界全般的 希望이다. 그 目標로 1人當 GNP 增加率, 1人當 保
健, 教育, 雇傭水準 등의 成長率을 策定하여야 한다.

③ 目標達成을 沮害하는 主要障礙를 明確히 하고 이를 克服하기
위한 手段을 講究한다.

④ 開發年代(DD)가 進行하는 동안 計劃의 進度를 審査한다.

以上이 第二次 UN開發 10年(DDII)의 基本的인 開發戰略에
對한 概要인 것이다. 開發計劃委員會는 1970年 1月에 最終 報告

書인 第六次報告 즉 DD II 를 위한 가이드라인 提案 (Preparations of Guidelines and Proposal for the Seco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 을 UN에 提出하니 이것이 所謂 「틴 버겐 報告」다. 同報告를 다섯가지로 要約한다면 아래와 같다.

① 開發國의 社會經濟構造 및 制度의 改革, 時代에 뒤떨어진 特權, 不正, 非能率의 排除

② 先進國의 開發國에 對한 資金供與 規模를 擴大 72년까지 GNP의 1%를 援助로 供與할것, 그중 75% (GNP의 0.75%) 는 公共開發援助 (ODA) 로 할 것, 75년까지는 ODA部分을 80%로 할 것

③ 5~10年以内に 一次產品에 對한 長期的인 安定된 均衡價格이 確立되도록 措置할 것

④ 開發國의 輸出擴大를 위해서 先進國은 關稅 및 非關稅障壁을 撤廢하고 國內經濟 構造의 轉換을 促進할 것

⑤ DD II 期間中 進陟을 評價하기 위한 機構를 新設할 것

以上の 勸告는 네가지 점에서 注目된다. 첫째, 世界가 單一共同體라는 것을 強調하고 南北問題도 이 바탕위에 接近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開發國 自體的인 自助努力도 重要하지만 先進國은 實質的인 도움이 될수있는 援助政策을 펴야 한다는 점. 셋째, UN을 보다 効率的으로 運用해야 한다는 점. 넷째, "開發"이라는 意味를 단순히 "生産能力"에만 局限시키는 것이 아니라 "社會經濟 構造의 變化"까지를 意味하는 것으로 把握함으로써, 開發途上國 經

濟의 二重構造를 特徵짓고 있는 土地所有制度, 行政上的 官僚制度, 教育制度, 慣習의 存在 때문에 생겨나는 經濟成長過程에 있어서의 社会的 不公平, 社会的 硬直狀態의 克服을 특히 強調한 점이다.

그러나 開發計劃委員會의 「린 버겐 報告」에서 強調되었던 開途國의 自助努力의 側面인 國內改革의 必要性은 DD II 戰略에서 限定的 表現에 의해서만 採擇되었기 때문에 社会開發側面을 經濟開發에 비해 더 重要視했던 「린 버겐 報告」가 忠實히 反映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린 버겐 報告」는 DD II 戰略의 基本的인 哲學뿐만 아니라 實際적인 接近方案을 提供하였던 것이다. 表12는 「린 버겐 報告」가 設定한 諸般開發目標가 DD II 戰略에 그대로 採擇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린 버겐 報告」에서 提案된 開發戰略과 類似하게 UN 總會에서 採擇된 政策措置를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援助關係에 있어서 GNP 1%의 目標는 72년까지 GNP 1% 상당의 援助提供이 不可能한 나라는 75년까지 이를 達成하고 ODA의 0.7%를 70年代 中盤까지 達成할 것. 特別引出權(SDR)을 開途國 開發融資에 링크시키는 것을 1972年 SDR 配分決定이전에 檢討할 것. 70年代末까지 援助條件을 大幅 緩和할 것.

② 貿易關係에 있어서는 1972年末까지 一次產品에 對한 國際的 措置를 마련할 것. 非關稅障壁의 輕減, 撤廢 등의 具體的 成果를 1972年末까지 早期達成할 것. 開途國에서 輸入해 오는 商品을

<表-12> '第2次國聯開發10年'의 目標外 60年代의 実績(年平均)

(單位: %)

地域	區分	國民總生產	1人當國總生產	農業生產增加率	工業生產增加率	輸出增加率	輸入增加率	원조총액 관(政府援助)	(備考) 1人當GNP (1969年)
	'第2次UN開發10年'의 目標	적어도 6 이상	3.5	4	8	7 이상	7 이하	GNP의 1% (0.7%)	
実績(60~69年)	開發途上國	5.4	2.8	2.5	6.4	6.9	5.8		\$ 200
	中南美	5.1	2.1	2.3	5.7	5.1	5.2		\$ 459
	아프리카	4.5	1.9	1.8	7.0	9.0	4.1		\$ 147
	西아시아	7.0	4.4	2.9		9.3	8.0		\$ 460
	東아시아	6.0	3.1	2.7	6.0	6.4			\$ 162
	南아시아	4.2	1.7						
	先進國	5.1	3.9	2.3	6.0	9.5	9.7	GNP의 0.74% (0.36%)	\$ 2,504

註: 先進國의 援助実績은 1969年의 DAC 加盟國 숫자임

資料: 日本通産省, 「通商白書」, 1971年

피해서 先進國內의 産業構造를 調整할 것

③ 科學技術移轉關係에 있어서는 開發國의 科學技術을 直接支援하고 技術移轉 問題를 促進키 위한 計劃을 作成 實施할 것 등이다.

이상과 같은 政策措置를 UN總회는 強力히 要請하였으나 1975년에 와서 先進國의 對外援助額은 GNP의 0.3%로 떨어졌고 世界銀行은 앞으로의 展望을 더욱 悲觀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 事實이었다. 이렇듯 UN決議事項에 對해서 先進國들의 冷淡한 反對 내지 留保意思 表明과 實際적인 政策措置의 不履行은 世界人口의 3분의 2를 收容하고 있는 第3世界에 挫折과 失望을 안겨다 주었다.

2. 非同盟國과 資源民族主義

1955年 수카르노 大統領이 印尼의 반등에서 新生國들을 위한 아프리카 아시아 會談(Afro-Asian Conference)을 召集하여 서로간의 關心事를 討議했던 것이 發端이 되어 이들의 모임은 그후 非同盟國會議(Non-Aligned Nations Conference)로 發展된다.⁴⁾ 非同盟國會議는 다시 유고슬라비아의 首都 벨그라드에서 1961년에 開催된데 이어 1964年 카이로에서 열렸고 같은해 제네바에서 UN의 通商開發會議(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가 처음 結成되었을때 非同盟 77個 國家가 第3世界의 代辯人으로 自處하여 UNCTAD하면 第3世界의 舞臺로 認定 받게

된다. 5) 이들은 第1과 第2世界 어느쪽에도 加担하지 않고 自立을 지킨다는 原則아래 같이 行動할 것을 約束한다. 이들 非同盟國會議의 性格과 動態를 살펴 보면 初期段階에서는 新生國들의 指導者들이 대부분 獨立運動을 하던 政治家들이어서 經濟官僚들이나 長官들도 開途國의 經濟的인 問題를 主張하는데는 微弱했던 것이다. 그러나 1970年 잠비아의 首都 루사카에서 開催된 非同盟國 首腦會議로 부터는 急進展하여 經濟問題의 重要性을 自覺하기 始作했고 이때부터 漸次 好戰的인 鬪士로서 變質되어 갔다. 루사카 首腦會議는 1972年 조지타운에서 非同盟 外相會議로 이어져 國際經濟의 諸般問題들이 하나 둘씩 討議되기 始作했다. 이들은 特히 自國經濟의 開發과 工業化 努力이 先進諸國의 多國籍企業들에 의하여 從屬的 工業化로 되어 가고 있다는 事實을 直視하고 經濟的 從屬을 벗어나 經濟自立이란 重要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第3世界의 共同利益을 위한 結束을 提唱하게 되었다. 60年代를 通하여 新生國들은 宗主國들과 政治, 經濟, 社會, 文化的 從屬關係를 脫皮해서 그들 相互間의 紐帶關係를 相互依存的으로 深化시키며 經濟開發의 實을 거두고 經濟自立을 實現하기 위하여 外部的 發展要素 즉 國際經濟体制의 改編에 神經을 쓰기 시작했다.

1964年 第一次 UNCTAD에서 처음으로 77個의 開途國 (Group of 77)이 第3世界의 結束을 象徵하는 그룹으로 結成된 후부터 國際問題關係에 있어서는 多數의 힘으로 強硬-辺倒로

나갔다. 어느 國際會議에서나 UN과 그 傘下組織體에서도 이들은 수많은 決議案을 多數의 힘으로 強行 採擇시켜 버렸다. 이러한 開發國들의 行動은 비록 經濟的인 自立을 위한 呼訴였지만 역시 先進國들에게 世界的 輿論과 國內의 同情者들의 政治的 影響力을 勘案할때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國際的인 決議案의 通過는 事實상 先進國에 對하여 아무런 法的 拘束力이 없기 때문에 開發國들의 絶對와 呼訴는 失望과 挫折의 代價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OPEC가 1973년에 取한 油價引上의 世界的인 衝擊은 마침내 開發國들에게 轉換期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方向을 提示한 것이다.

結局 一次產品 즉 資源保有國들은 先進國들과의 貿易에서 交易條件과 貿易收支의 惡化 및 外債의 累積으로 인한 經濟的 惡循環에서 脫皮하기 위한 方案이 自國資源에 對한 主觀을 確立하고 自國이 保有하고 있는 資源의 世界供給을 量的으로 調節함으로써 交易條件을 改善하는데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곧 資源民族主義가 抬頭된 가장 重要한 原因인 것이다. 이러한 資源民族主義의 表現은 73年 油價波動以前에도 微溫的이었으나 이미 싹이 트고 있었음을 아래와 같이 一連의 事件들에서 알수 있다.

※ 主要 資源民族主義 關聯事件⁶⁾

1951年 이란의 石油部門 國有化

1952年 第6次 UN總會 資源保有國의 自國資源에 對한 權

利 認定

1960年 産油 6個國(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리비아, 베네주엘라)이 OPEC를 結成

1962年 UN, 天然資源에 對한 恆久的 主權의 權利 宣言

① 外國資本의 活動에 對한 條件과 規制

② 資源開發로 생긴 利益은 協定에 따라 分配

1964年 第1次 UNCTAD에서의 프레비쉬 報告書

1967年 銅輸出國政府間 協會(CIPE) 結成

1968年 OAPEC(OPEC의 아랍版) 보크사이트 生産國機構(IBA)를 結成

1969年 잠비아 一部 外國系 産銅会社를 國有化

1970年 칠레 銅鉍山 完全國有化 : 鉍石 輸出國會議

1971年 第3次 UNCTAD에서 리마憲章을 採擇하여 天然資源의 恆久主權의 原則을 決議

1972年 우라늄價格에 對한 生産國會議

1973年 아랍産油國 原油供給 削減 및 價格引上 - 所謂 一次 世界油類波動

1974年 바나나 輸出國同盟(UPED)를 創設, 라틴 아메리카의 7個國 : 水銀生産國그룹의 設立

이러한 一連의 事件들은 開發國들의 地下資源에 對하여는 國家 主權을 行使할 權利가 있음을 끊임없이 主張하여 온 발자취인

것이다. 특히 NIEO를採擇한 第6次 UN 特別總會에서 알제리 政府가 提出한 105個條로 構成된 資源開發에 對한 覺書中에 第80條와 第82條는⁷⁾ 다음과 같이 資源側面에서 南側의 南北問題에 對한 見解를 담고 있다.

第80條 開發途上國의 豊富한 資源의 利用은 이들 原材料에 附隨하는 收入의 增加를 가져온다. 先進國은 지금까지 이 收入을 마음대로 차지하여 왔다. 開發途上國은 이것을 回收하여야 한다.

第82條 所得의 回收에 더하여 開發途上國은 이것을 回收하여야 한다.

第82條 所得의 回收에 더하여 開發途上國은 그들의 基礎的 原材料를 活用하여 經濟開發이란 道程으로 出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時間은 얼마 없다.

이렇게 第3世界는 自然資源에 관한 領土主權을 主張하면서 不公平한 現存 國際經濟體制와 秩序에 資源이라는 武器로 改編을 要求하기에 이른 것이다.

資源主權問題와 資源의 武器化의 가장 重要한 例가 바로 石油輸出國機構(OPEC)의 結成이라 하겠다. 이는 資源產出國의 結成體로서는 先驅的인 機構인 것이며 外國의 巨大資本과 產出國間의 關係에서 產出國의 勝利로 이끈 가장 유명한 成功事例라고 할수 있다. OPEC는 1960年 第一次 會合에서 物品協定の 가장 重要한 原油價引上을 시도했다. 물론 이외에도 多國籍企業과 主人國間의 收入分配問題, 生産高規制問題, 多國籍企業의 操業活動規制問題 그

리고 操業國의 長期的 經濟發展을 위한 役割問題 등이 協商對象에 包含이 된다. 그러나 原油價 引上問題는 곧 1970年까지 沈黙속 에 사라지고만다. 1970年 리비아가 一方的으로 油價引上을 선포 해 버렸다. 이것이 發端이 되어 1970年 12月 카라카스에서 그 리고 1972年 2月 테헤란에서 集團交渉에 成功한다. 1973年末에 서 1974年初까지 油價는 마침내 5倍나 暴騰해 버렸다. OPEC 은 集團交渉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함을 經驗하고 이때부터 價格 引上을 시도하기 위해서 原油生産을 量的으로 規制하게끔 되었다. 종전에는 多國籍企業의 獨斷的인 價格決定이 通例였었고 1959年엔 世界石油市場의 95%를 獨占하고 있는 이 메이저들은 價格引上은 커녕 下向調整까지 했었던 것이다. OPEC 諸國內의 産油施設도 1970年엔 100%가 多國籍企業인 메이저들의 完全所有物이었던 것 이 1974年 油類波動 이후엔 外國資本의 過半數 所有形態는 原則 에서 오히려 例外的인 경우가 되어버린다.

1973年 非同盟會議에서 아랍産油國들이 有史以來 最初로 一方的 인 油價引上을 斷行하면서 決議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8)

- ① 總供給可能量을 減少시키기 위해 原油生産을 減한다.
- ② OAPEC (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를 통하여 아랍諸國에 非友好的인 國家에는 輸出을 禁止한다.
- ③ OPEC의 原油價의 4倍引上을 歡迎한다.

이러한 開途圈의 結束에 先進國이 처음으로 無力했다는 것이 특

記할만하고 緊要한 物資供給에 있어서 先進圈이 貧國들에게 依存해야 한다는 事實이 証明된 셈이다. 이뿐만아니라 其他 原資材에 있어서도 團合하면 成功할수 있다는 實例를 提示함으로써 77 그룹의 好戰性을 더욱 強硬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이 다음해 第6次 UN 特別總會에서 NIEO의 強行通過는 물론 UN의 經濟憲章까지 採擇시키는 起爆劑가 되었던 것이다. 그후 上述했던 바와 같이 많은 一次產品들의 生産者輸出組合들이 만들어 졌고 開途産出國에서 操業하고 있던 多國籍企業을 몰아내고 國有化하는 경우도 빈번히 發生하게 되었다.

Ⅲ. 開途圈의 反亂

1. 國際經濟機構를 통한 開途國의 움직임

東西冷戰으로부터 平和共存으로 國際政治의 氣象圖가 好轉되고 더불어 戰後 獨立된 新生國의 數가 늘어감에 따라서 南北問題는 世界의 重要한 課題로 登場한다. 政治的인 獨立에만 神經을 쓰던 이들 新生國들은 곧 종전의 宗主國들에게 여전히 經濟的으로 隸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擴大一路에 있는 所得과 貿易利益의 隔差로 惹起되는 經濟的 惡循環으로부터 脫皮하기 위해서는 우선 現存하고 있는 國際經濟秩序의 改編이 있어야 한다고 主張하게 되었다. 이러한 第3世界의 意志는 1955年 수카르노 印尼大統領이 召集했던 반둥의 아프리카 아시아 會談이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어서 1961年 유고슬라비아의 首都 벨그라드에서 開催되었던 非同盟會議에 잇달아 1962年 7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75個 開發途上國들이 모여 第3世界의 힘을 誇示함에 서 나타난다. 처음으로 開途國들의 當面한 經濟的인 問題들을 討議한후 問題들의 解決策은 國際舞臺에서 充分히 論議되어야 한다고 決定하고 開途國들의 經濟開發과 國際貿易利益의 再調整을 위한 國際會議을 早速히 開催해 줄것을 要求하는 카이로 宣言을 採擇한다. 물론 先進國들은 GATT의 活動이 沮害될 것을 우려하여 消極的인 反應을 보였지만 1962年 UN總會는 多數에 의해서 UNCTAD

를 設立했고 開途圈의 主張대로 第1次 UNCTAD를 1964年 上半期에 開催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UNCTAD는 先進圈을 攻撃하는 開途圈의 主舞台가 된것이다.

UNCTADI은 1964年 3月 23日부터 6月 1日까지 약 2個月이 넘게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 당시 第3世界의 心情을 「켓치 프레이즈」로 表現한다면 "援助로 부터 貿易을"인 것이다. 이 「켓치 프레이즈」가 곧 UNCTAD 事務總長이던 프레비시의 報告書의 타이틀(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이었고 이때 參席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中南美의 開途諸國 77個 國家들을 일컬어 77個그룹(Group of 77)이라고 하며 지금은 會員數가 北傀까지 包含해서 110個國이나 된다. 프레비쉬 報告書의 重要한 提案은 GATT를 흡수해서 새로운 綜合的인 世界貿易機構를 創設하자는 것이다. 現存하고 있는 GATT는 先進圈內의 貿易問題 解決에만 有用할뿐 南北間의 貿易利益調整과 같은 問題의 解決은 不可能하다는 觀點과 특히 開途國 輸出收入의 80%를 차지하는 一次產品關係의 協定이 GATT體制밖에서 締結되고 있다는 理由 때문에 새로운 綜合的인 機構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또한 프레비쉬는 一次產品 交易條件의 改善을 위해서는 品目別 商品協定の 締結과 補償融資方式의 實施를 提案하였다.⁹⁾ 그러나 프레비쉬가 提案한 새로운 貿易機構設置 問題는 先進圈의 反對로 霧散되었고, UNCTAD는 UN의 常設機構로서 4年마다 總會를 開催하기로 決定된 것만이 UNCTADI의 成果라 할수있다. 그 이후 1965年 GATT가

開途國의 貿易問題에 關心을 갖게 되어 GATT內에 貿易開發委員會(TDB-Trade and Development Board)를 設置하여 開途圈의 開發과 貿易을 다루고 GATT의 互惠, 無差別原則의 緩和 내지 修正할 수 있는 좋은 契機를 만들게 되었다. 이어 1965년에는 UN內에 工業開發機關(UNIDO-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을 創設하여 지금도 開途國 工業化過程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UNCTAD II가 예정대로 1968년에 열리기에 앞서 1967年 韓國을 포함한 75個國이 알제(Algier)에서 第一次 閣僚會議을 開催하고 南北問題에 관한 한 南側의 立場과 諸要求를 集大成한 基本憲章을 採擇했다. 內容을 살펴보면 第一次 UNCTAD 總會때 舉論되었던 商品協定の 擴大, 特惠關稅의 '實施' 先進各國의 GNP 1%의 對開途圈 援助 등의 實行을 要求하였고 債務累積問題 등 까지도 指摘이 되었다.

이러한 開途國의 準備아래 第二次 UNCTAD 總會는 1968年 2~3월에 걸쳐 뉴델리에서 開催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先進圈은 잘 結束되었으나 開途圈은 先·後發國들 間의 開發隔差가 커짐에 따라 제대로 團合할 수가 없었다.

뉴델리 總會에서는 UNCTAD를 土臺로 하여 좀 더 具體的인 政策目標에 關係 決議文이 採擇되었다. 重要한 項目 3가지를 羅列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次産品問題에 대해서 코코아, 砂糖, 油脂, 天然 고무, 硬質纖維 등의 프로그램에 合意를 볼 것

② 特惠에 대하여는 貿易開發理事會 (Trade and Development Board-TDB)의 下部機關으로 特惠特別委員會를 設置하며 1970年初부터 對象品目에 대한 特惠措置를 實施키로 하고

③ 援助에 대해서는 國民所得의 1%에서 GNP의 1%로 이번 總會에서 開途國이 얻은것은 先進國으로부터의 援助額을 國民所得 (National Income)의 1%에서 GNP의 1%로 轉換시킨 것과 또한 開途圈으로부터 들어오는 半製品이나 完製品에 대한 一般特惠關稅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GSP) 供與를 原則적으로 合意한 것뿐이다.

60年代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친 非同盟國會議에 따른 宣言文 그리고 UNCTAD I과 II의 決議文들이 있었어도 南北의 經濟的인 隔差는 深化되기만 했고 DD I의 結實 역시 失望적으로 評價되자 UN總會는 DD II를 宣言한다. 그러나 71年 8月 15日에 發表된 닉슨 美大統領의 緊急措置로 말이암아 IMF-GATT 體制는 崩壞되고 이에 唐愴한 先進圈은 더욱 開途圈에 대해 冷淡한 反應만을 보인 것이다. 이 무렵에 77그룹은 第3次 UNCTAD總會를 앞두고 1971年 10月 28日부터 페루의 首都 리마에서 第二次 關係會議을 開催하여 리마憲章을 採擇한다. 이 憲章의 主要骨字로는 보다 公正한 國際分業體制를 위한 先進國의 産業構調整을 要求하는 등 其他 10個項의 基本原則과 具體的인 行動計劃이 包含되어 있다.

이번 閣僚會談의 特徵은 무엇보다 開途圈內의 意思對立의 問題이다. 예를 들면 半製品과 完製品 輸出에 있어서의 一般特惠關稅制度의 擴大適用은 先發開途國들에게만 利益을 줄뿐 一次產品만 輸出하는 後發開途國들의 利益은 없다거나 EEC의 特惠制度가 아프리카諸國에 偏重된다는 등의 異見이 提起되었었고 특히 아시아의 先發開途國들은 先進圈과 對立 아닌 對話와 協調를 強調하자는 見解를 披擲했다.

1972年 4月 13日부터 5月 12日 칠레의 산디아고에서 열린 UNCTAD III에서는 先進圈에서도 NIXON宣言 때문에 崩壞된 IMF와 GATT体制를 놓고 開途國에 關心을 쏟을 餘念이 없었으므로 이 당시의 主要問題였던 國際通貨問題, UNCTAD의 機能強化問題, 技術移轉問題, 一次產品과 開發金融問題 등에 있어서 別다른 合議없이 多數에 의하여 다음의 決議案들이 採擇되었다.

① 援助額 - GNP의 1%라는 援助目標를 1972-75年 사이에 達成한다. ODA는 75년까지 GNP의 0.7%까지 達成시킨다.

② 援助條件 - 公共開發支援(O DA)의 金利는 年 2%, 據置期間은 7~10年, 償還期間은 20~40年으로 해야 한다는 피어슨 報告書의 勸告를 받아 들일것. 그리고 贈與比率은 75년까지 63%以上으로 올릴것. 피어슨(前 캐나다首相 L.B. Pearson)氏는 世界銀行 맥나마라(Robert S. McNamant)總裁의 要請으로 國際開發委員會라는 機關을 暫定的으로 構成시켜 開途國의 經濟發展을 위한 對外援助自體의 改善方案을 研究하여 1969年 IBRD에 報告

한바 있다.

③ 開發金融과 SDR을 連結 - IMF理事會에서 國際通貨制度 改革 論議의 테두리안에서 連結問題의 實現可能性과 實現方法을 檢討하여 UNCTAD事務局에 結果를 報告할 것

④ 新國際會議에서 先進國은 開發圈의 主張에 귀를 기울일 것

⑤ 技術移轉 - 技術移轉問題를 取扱할 機構를 UNCTAD內에 設置할 것 등이다.

2. 新國際經濟秩序의 宣言

UNCTAD II (1972年)까지만 해도 國際會議에서 主役을 맡아 왔던 人物들은 戰後 獨立을 이룩했던 新生國들의 政治家들이었다. 따라서 新生國의 指導者들은 經濟問題에 단단한 經濟分野의 閣僚들에게 一任시켜 놓고 있었다. 그러나 1973年 中東戰 以後, 이 해 10月 OPEC이 石油의 武器化를 위해 原油의 價格과 量을 調整함으로써 빚어진 世界的인 油類波動을 겪고서부터 新生國 指導者들은 經濟專門家에게만 맡기던 經濟問題에 대하여 直接 깊은 關心을 갖고 다루기 시작하기에 이른다.

油類波動을 惹起시킨 OPEC의 結束은 弱小國家들이 힘을 합해 共同步調를 취하면 既存 國際經濟秩序를 開發國에 有利하게 改編시킬수 있다는 展望을 갖게끔 했다. 이러한 一連의 事態와 더불어 關聯 非同盟國 頂上會談이 1973年 9月 알제 (Algier)에서 열렸

고 이會議에서 現存 國際經濟秩序를 完全히 고치자는 意圖로 經濟宣言(Economic Declaration)과 經濟協力을 위한 行動計劃(Action Programme for Economic Co-operation)을 採擇한다. 이 文書들이 8個月後 UN 第6次 特別總會에서 議決된 新國際經濟秩序의 樹立을 위한 宣言文(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의 基礎가 된다. 이어서 1974年 12月 第29次 正規 UN總會에서는 UN 經濟憲章(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그리고 1975年 9月 UN 第7次 特別總會에서는 開發과 國際經濟協力(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이란 決議文이 採擇되니 이상과 같은 文書들이 바로 新國際經濟秩序의 基本文書가 되는 것이다.

第6次 UN特別總會는 NIEO의 樹立에 관한 宣言文 7個項과 行動計劃¹⁰⁾ 10個章을 投票에 의하지 않고 多數의 힘에 의해서 滿場一致의 形式으로 採擇하였다. NIEO는 단적으로 말해서 開途國들이 植民統治를 받고 있을때 만들어진 既存 國際經濟秩序를 改編하여 開途圈의 利益이 保障되도록 制度를 高치자는 것이다.

以上の NIEO의 宣言文 行動計劃에 대하여 先進國들은 開途圈內 一部國家들의 經濟的인 어려움이 이미 危機에 逢着했음을 把握하면서도 開途國들의 一次產品에 관한 너무나 一方的인 措置, 특히 開途國領域內의 天然資源에 대한 恆久的이고 完全한 主權 그리고 外國人所有財産의 國有化措置는 지나친 것으로 先進圈과 充分한 相互

第1項 지난 10年間 가장 重要的 成就是 植民統治나 外國支配로부터의 獨立이다. 아직도 人種差別 및 新植民地主議는 開發國 開發의 障害가 되고 있다. 技術의 進歩에 따른 惠澤은 國際社會의 모든 構成員에게 公平히 分配되지 못하고 있다. 現存 國際經濟秩序下에서 世界人口의 70%를 차지하고도 世界所得의 30%밖에 얻지 못하는 開發國에 平等하고 均衡있는 發展을 기대하기 不可能하다. 이러한 制度下에서 南北隔差는 계속 擴大되고 不公平은 永續할 것이다.

第2項 現在의 國際經濟秩序는 最近의 國際的 政治經濟關係의 發展과는 直接的으로 相衝된다. 따라서 力關係의 變化에 의해 國際共同體의 모든 政策決定에 開發途上國의 全面的인 參與가 必要하다.

第3項 最近의 事態는 世界共同體 構成國의 相互依存性이 明確히 부각되고 있다. 先進國의 繁榮과 開發國의 成長사이에는 밀접한 相互關聯이 있다. 國際的인 發展을 위하여 協力은 모든 나라들의 同一한 目標요 義務이다.

第4項 新國際經濟秩序 樹立을 위한 原則은 다음과 같다.

- ① 主權平等, 民族自決, 他國領土 侵略의 不許, 內政干涉 不許
- ② 平等에 立脚한 國際社會 全構成國家들의 廣汎한 協力
- ③ 世界經濟問題의 解決에 있어서 平等原則에 立脚한 效率的인

参与: 가장 開發이 뒤떨어진 나라들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海岸線이 없는 나라들 (Land Locked), 島嶼國家와 經濟危機와 自然災難에 의하여 가장 심하게 被害본 나라들을 위한 特別考慮

- ④ 經濟·社会体制의 自由選擇
- ⑤ 自國內 天然資源과 各種 經濟活動에 있어서 完全하고 恆久的인 主權 곧 各國은 事情에 따라 資源을 自治的으로 統制하고 國有化 또는
- ⑥ 外勢에 의한 占領下에 입은 天然資源 또는 기타 資源에 대한 損失을 完全히 補償받을 權利를 모든 國家에 享有한다.
- ⑦ 多國籍企業의 規制
- ⑧ 外勢의 占領下에 있는 植民國들은 解放을 成就하고 그들의 天然資源과 經濟活動에 관한 有效한 支配權을 되찾을 權利를 保有한다.
- ⑨ 新植民主義 (neo-colonialism) 의 배경
- ⑩ 開途國이 輸出하는 一次產品이나 工產品의 交易條件을 改善하고 世界貿易을 增大시킨다.
- ⑪ 開途國에 援助擴大
- ⑫ 國際通貨体制의 改編은 開途國에 대한 資本移轉에 초점을 들 것
- ⑬ 人造資材에 대한 競爭力 強化
- ⑭ 國際經濟協力分野에 있어서 互惠를 바라지 않는 開途國에 대

한 特惠措置

- ⑮ 有利한 條件의 資源移轉
- ⑯ 開途諸國에 대하여 最新 科學技術의 成果를 入手可能케 할 것
- ⑰ 天然資源의 浪費를 抑制할 것
- ⑱ 開途國의 國內資源動員을 強化
- ⑲ 開途國間의 協力強化 (特惠制度의 구사)
- ⑳ 生産者 카르텔 (Producer's association)을 造成

第 5 項 第 2 次 UN開發戰略의 目標達成이 本宣言의 目標達成에 크게 寄與하도록 한다.

第 6 項 UN은 國際經濟協力の 諸問題를 包括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新國際經濟秩序의 樹立에 큰 役割을 해야 한다.

第 7 項 新國際經濟秩序 樹立을 위한 本宣言은 모든 人間들과 모든 國家間의 經濟關係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基礎가 될 것이다.

第1章：原材料 및 一次産品의 基本的 問題

1. 原材料
2. 食糧
3. 貿易
4. 運輸, 保險

第2章：國際通貨制度와 開發融資

1. 國際通貨制度 改革의 目標
2. 開發融資

第3章：工業化

第4章：技術移轉

第5章：多國籍企業

第6章：世界經濟權利義務憲章과의 關係

第7章：開發途上國間의 協力

第8章：天然資源의 恆久主權

第9章：UN의 強化

第10章：特別計劃

1. 經濟危機에 의해 最大의 打撃을 받은 諸國의 求濟 및 開發援助의 緊急措置로서 1980년까지의 特別計劃 發足
2. 各國政府에 의한 緊急援助
3. 特別基金의 設立, 業務는 늦어도 1975년에는 開始할 것
4. 特別基金을 위해 36個國으로 特別委員會 設立

協調가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多國籍企業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美國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가장 強硬했으며 他國의 天然資源을 損傷시킨 國家는 이에 대해서 完全報償을 해야 한다는 事項에 대해서도 強力히 反對하였다.

特別히 主要한 争點에 관한 開途國의 主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天然資源의 永久主權 : 모든 國家는 自國의 天然資源에 대하여 永久主權을 가지며 自國의 開發目的에 따라 自國의 天然資源을 統制할 權利를 갖고, 占領 및 外國支配 등에 의한 損害를 補償받을 權利를 가지며, 永久主權의 한 形態인 國有化 등은 自國法만에 의하여 補償, 기타 紛争을 解決할 權利를 갖는다.

② 生産者 카르텔 : 世界經濟에 있어서 重要한 主要 一次產品에 대하여 開途國의 生産者 카르텔을 設立하고 強化한다.

③ 價格 인덱세이션 (Price Indexation) : 開途國의 主要輸出商品인 一次產品의 價格을 主要輸入品인 各種 工產品의 價格上昇에 連結시켜 上昇시키는 시스템을 만든다.

위와 같은 開途國의 主張이 담긴 新國際經濟秩序 宣言文과 行動計劃을 둘러싸고 先進圈과 開途圈은 무수한 論難을 벌였으나 最終적으로는 多數의 힘에 의하여 滿場一致의 形式으로 採擇되기는 하였으나 이상의 主要項目에 대해서는 여전히 妥協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先進國들은 이 問題에 관한 한 留保를 表明했으나 開途國은 이상의 事項에 대한 先進國의 義務履行에 對하여 先進國側에게 實

質的으로 責任을 追窮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産油國들은 石油問題에 대신하여 南北問題를 내세우는데 成功했고 石油波動이 후 南側의 内部結束이 分裂되려던 狀況下에서 開途國의 團結에 一力を 加해 注目을 끌었다.

第6次 UN特別總會에서 開途國의 多數의 壓力에 의하여, 一方的으로 通過시킨 新國際經濟秩序 宣言과 行動綱領이 先進國들의 強한 反對와 留保條件에 걸리자 開途國들은 UN總會에서 法的 拘束力을 갖는 憲章을 議決하기 所望한다. 그러나 第6次 特別總會때 採擇되었던 新國際經濟秩序와 마찬가지로 主要 先進國들의 反對때문에 法的 義務를 先進國에게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開途國은 UN을 舞臺로 하여 또다시 IMF와 GATT 등의 現存體制에 希望을 걸수 없다하여 再強調하는 意味에서

1974年 12月 第29次 UN總會에서 諸國家의 經濟權利義務憲章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이를 UN經濟憲章이라 함)을 採擇시킨다. 이 憲章은 1972年 UNCTAD總會에서 멕시코大統領 에체베리아 (Louis Echeverria) 가 正式 提議했던 것이 經濟憲章의 作業班들에 의해서 다듬어진 것이다.

本 憲章은 34個條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중 重要한 대목들은 第2條의 天然資源의 恆久主權, 民間投資規制 그리고 多國籍企業에 關한 것이고, 第5條의 生産者 카르텔問題, 第6條의 商品協定, 第19條의 開途國에 대한 特惠附与, 마지막으로 第29條의 價格 인

멕시코선問題라 하겠다. 이 憲章의 內容을 보면 表15에 나타난 概要에서 볼수 있듯이 第6次 UN特別總會에서 採擇되었던 NIEO 宣言文과 行動綱領의 基本精神에 合致되나 또한 上記 두 文獻의 範圍를 넘어선 것은 아니다. 1973年10月 4次 中東戰을 契機로 일어났던 石油波動과 그 이후 開發國의 資源主權의 行使를 考慮하면 이 UN憲章은 이렇게 進行되고 있는 資源에 대한 主權 行使를 UN에서 再確認하겠다는 努力의 一環이라고 할 수 있다.

第 2 條：天然資源의 恆久主權，民間投資規制，多國籍企業

第 1 項 모든 國家는 自國의 天然資源에 대하여 完全한 恆久主權을 가지며 또한 그것을 自由로 行使할 權利를 갖는다.

第 2 項 모든 國家는 다음 權利를 갖는다.

- ① 自國의 法令에 따라 外國投資를 規制하고, 그에 대하여 權限을 行使하는 것
- ② 多國籍企業의 活動을 規制, 監督하고 法令과 規制의 遵守, 自國의 經濟社會政策에의 合致를 確保하도록 措置를 취하는 것
- ③ 外國人資產을 國有化하고 收用 또는 所有權을 移轉하는 것, 補償問題로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는 國有化한 國家의 國內法에 따라 解決하는 것

第 5 條：生産者 카르텔

모든 國家는 一次產品 生産國 機構에 參與할 權利를 갖는다. 이에 대하여 모든 國家는 이 權利를 尊重할 義務를 갖는다.

第 6 條：商品協定, 供給保證

長期 多角的 商品協定の 締結 등에 의해 國際商品 貿易의 發展에 寄與하는 것은 모든 國家의 義務이다.

第 19 條 : 全分野에 의 特惠의 擴大

가능한 경우에 先進國은 國際經濟協力の 分野에 있어 開發途上國에 대하여 一般 特惠的, 非互惠的, 無差別的 待遇를 하여야 한다.

第 28 條 : 價格 인덱세이션

모든 國家는 開發途上國의 輸入品價格에 連結하여 輸出品價格을 調整하는데 協力할 義務가 있다.

IV: 先進圈의 対応

1. 新現實主義의 抬頭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先進圈 第一世界는 전에 經驗한바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激流에 휘말린다. 1973年 10月부터 시작된 石油波動으로 原油價가 4倍以上 引上되었기 때문이다. 原油價의 이러한 急激한 上昇은 價格體系에 큰 衝擊을 주어 世界經濟秩序가 混亂에 빠지게 되니 結局 資本主義經濟體制의 動搖마저 招來될지 모른다는 憂慮를 주게 되었다. 1971年 닉슨의 緊急措置로 IMF-GATT體制가 崩壞하고 石油波動까지 겪게 되니 先進諸國은 世界經濟에 대한 方向感覺마저 喪失하게 되었다. OPEC의 成功的인 例에 鼓舞된 第3世界는 철저히 團結하여 新國際 經濟秩序를 1974年에 UN에서 通過시키고 1975年엔 UN經濟憲章을 議決하게 되니 産油國을 포함한 第3世界의 힘은 先進國들 앞에 莫強히 誘示된 것이다.

原油價格을 引上調整하여 世界經濟를 다시 安定軌道로 回復시키고자 하는 것은 先進國들 뿐만이 아니라 先進國들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非産油開發國들도 바라는 바였으며 이러한 霧困氣가 南北兩側으로 하여금 反省할 수 있는 契機를 만들어 주었다. 先進國側에서는 開發國의 意思를 完全히 무시할 것이 아니라 相對側의 立場을 理解해서 實質的인 合意를 이루어야 한다는 見解가 나타나

기 시작한다.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이를 新現実主義 (New Realism)의 抬頭라고 한다.

主張과 反對로 새겨진 國際會晤를 止揚하고 實質的인 合意를 目標로 한 先進國과 開發國의 努力은 石油波動以後 최초로 1975年 4月 파리에서 프랑스 지스카르 大統領의 提案에 따라 美國, 日本 EC 등의 先進國과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이란, 베네쥬엘라, 印度, 브라질과 자이레가 開發國을 代表로 參席하여 UN會議에서 期待하기 어려운 霧困氣를 脫皮해 實利主義的인 對話를 해보고자고 모였다. 이러한 世界的인 現實主義的 무드에서 1975年 第7次 UN 特別總會가 열렸다.

第6次 UN 特別總會에서는 新國際經濟秩序 宣言에 이은 各種 決議가 形式的인 成果만 거두었지 實質的으로 아무런 先進國의 約束을 얻지 못한데 대해 反省하면서 開發國은 第7次 UN 特別總會에서는 具體的인 成果를 거두기 希望하는 가운데 協商에 応할 用意로 임한다. 따라서 準備會議段階부터 先進國과의 對決을 피하기 위하여 開發國의 問題를 우선하자는 태도를 버리고 世界的인 次元에서 時急한 主要가 要望되는 合意possible한 問題를 몇가지 들어 交渉하겠다는 態度로 6個 項目(國際貿易, 通貨改編과 開發支援을 위한 財源의 移轉, 科學技術, 工業化, 食糧과 農業, 그리고 UN 機構의 改編)을 提案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先進國側에서도 종래의 드문 好意的인 反應을 보였는데 첫째, 1975年 4月 英國의 윌슨首相(Harold Wilson)은 聯邦首腦會議에서 一次產品에 對한 보다 協調的인 발언이 있었고 第7次 UN特別總會에 對한 EC의 立場을 開發國要求에 和解的이고, 元利金償還 問題나 物品價格安定 또는 開發支援 擴大에 對하여 더욱 協調的으로 임하자는 基準書(Working paper)의 合意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둘째로는 美國의 키신저國務長官의 一次產品에 對한 提案, 셋째로는 파리의 南北會議(1975年4月) 등이다.

특히 美國이 具體的으로 提案한 內容은 실로 革命的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美國態도의 轉換이며 EC諸國도 대체로 美國의 立場에 同調하니 石油波動과 資源民族主義의 抬頭는 先進圈이라고 달리던 말의 고삐를 잡은 셈이다. 美國의 提案內容을 살펴보면

① IMF內에 現存補償融資에 代替하여 開發安定基金을 創設하고 輸出代錢의 變動에 對備하여 年 25億弗以上の 融資를 可能하게 할것.

② 重要物品에 對한 產出國과 消費國의 協商

③ 非關稅障壁을 規制하여 開發國에 特惠措置

④ IFC로 하여금 開發國工業에 對한 投資促進을 위하여 國際投資基金(International Investment Trust)를 創設하고 IFC의 資金은 4倍로 할것.

⑤ 開發圈의 原材料資源의 開發에 힘 쓸것.

⑥ 美国은 쌀과 小麦의 備蓄量을 增加하여 3천만톤까지 한다.

⑦ 새로운 天然資源의 開發을 위한 UN 回轉基金을 美国은 支持하고 이에 出資한다.

⑧ 開發國의 에너지 開發을 위하여 國際에너지 機關(International Energy Institute)을 創設한다.

⑨ 開發國에 研究開發結果를 供給하기 위해 國際技術情報센터를 創設한다.

⑩ 開發國의 工業化를 加速시키기 위해 國際工業化機構(International Industrial Institute)를 創設한다.

이상과 같은 協助的 霧圀期속에서 開發國들이 提案했던 6個 項目을 包含한 所謂 開發과 國際經濟協力(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에 관한 決議案을 滿場一致로 採択하였으니 그 內容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① 인덱세이션(Indexation) : NIEO에서의 推象的 表現을 脫皮하여 開發國의 購買力을 維持시키는 方法으로 인덱세이션을 인정하고 直接的·間接的 인덱세이션 計劃에 對한 檢討는 UNCTAD에 의해 계속될 것.

② 先進國 GNP의 0.7% 公共開發支援 : 第二次 UN開發10年을 위한 開發戰略에서 合議된대로 先進國 GNP의 0.7%를 公共開發支援으로 提供한다는 目標履行을 先進國은 確約하여 1978年까지 이 目標達成을 위해 公共開發支援의 效果的 增大를 共同目標로 採択한다. 이 決議事項에 對해서 先進國들 거의가 反對했다.

③ 外債輕減 : NIEO 에서도 採択되지 않았던 것이나 이번 總會에서는 開發國의 外債負擔을 緩和시킬 수 있는 方案을 模索하기 위하여 1976年5月 UNCTAD 4次總會에서 主要援助國, 債權國, 債務國으로 構成되는 會議의 召集을 檢討하기로 議決했다.

以上과 같은 主要案件들은 지난 數年間 開發國들이 主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先進國들의 協助를 期待하기 어려웠던 것이었으나 第7次 UN 特別總會에서 先進國들이 처음으로 新國際經濟秩序의 必要性을 인정함과 아울러 協助的 姿勢로 轉換함으로써 南北間에 新現實主義時代가 開幕되는 意味를 갖는다 하겠다.

開發國들은 第7次 UN 特別總會에서 보여진 先進諸國의 보다 肯定的인 姿勢에 자신을 얻어 다가오는 第4次 UNCTAD 總會에서는 좀 더 開發國들의 要求事項을 先進國에 납득시킬 作業을 시작한다. 이것이 곧 76年1月26日부터 2月6日까지에 걸쳐 필리핀의 首都 마닐라에서 열린 第3次 77그룹 關係會議이다. 이會議은 第4次 UNCTAD總會를 앞둔 準備段階였으며 結果로서 17個項의 마닐라 宣言文 (Manila Declaration) 과 9個 分野에 걸친 行動計劃 (Programme of Action) 을 採択한다. 이 宣言은 開發國들의 先進國들에 對한 要求를 最大로 망라한 內容으로 NIEO 의 宣言文과 經濟憲章의 原則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內容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一次產品에 對한 諸般問題의 解決을 위한 모든 결정과 행동은 UNCTAD에서 한다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一次產品 綜合프로그램의 目的, 対象品目 취해야 할 措置와 交渉計劃등을 包含하며 그 方向은 一次產品의 交易條件의 改善, 實質價格水準의 維持, 價格 및 供給의 安定, 商品協定締結 同時에 緩衝在庫 등에 必要한 資金을 供給하는 共同基金을 設置하고, 인맥세이션, 補償融資制度의 強化 등에 의해 이를 補完한다.

② 製品, 半製品에 대해서는 一般特惠의 改善, 開途國輸出工產品에 準한 先進國의 産業再配置政策, 多國籍企業의 規制, 多角的 貿易交渉에 있어서의 GATT 第4部의 改正을 要求

③ 開途國의 債務問題에 대해서는 二國間의 公共債務를 救濟하고 특히 가장 어려운 開途國 (Most Seriously Affected Countries) 에 對한 支払延期

④ ODA의 GNP 0.7%를 80년까지 實現할것. ODA의 算定은 元金과 利子 償還을 公제한 純資本移轉으로 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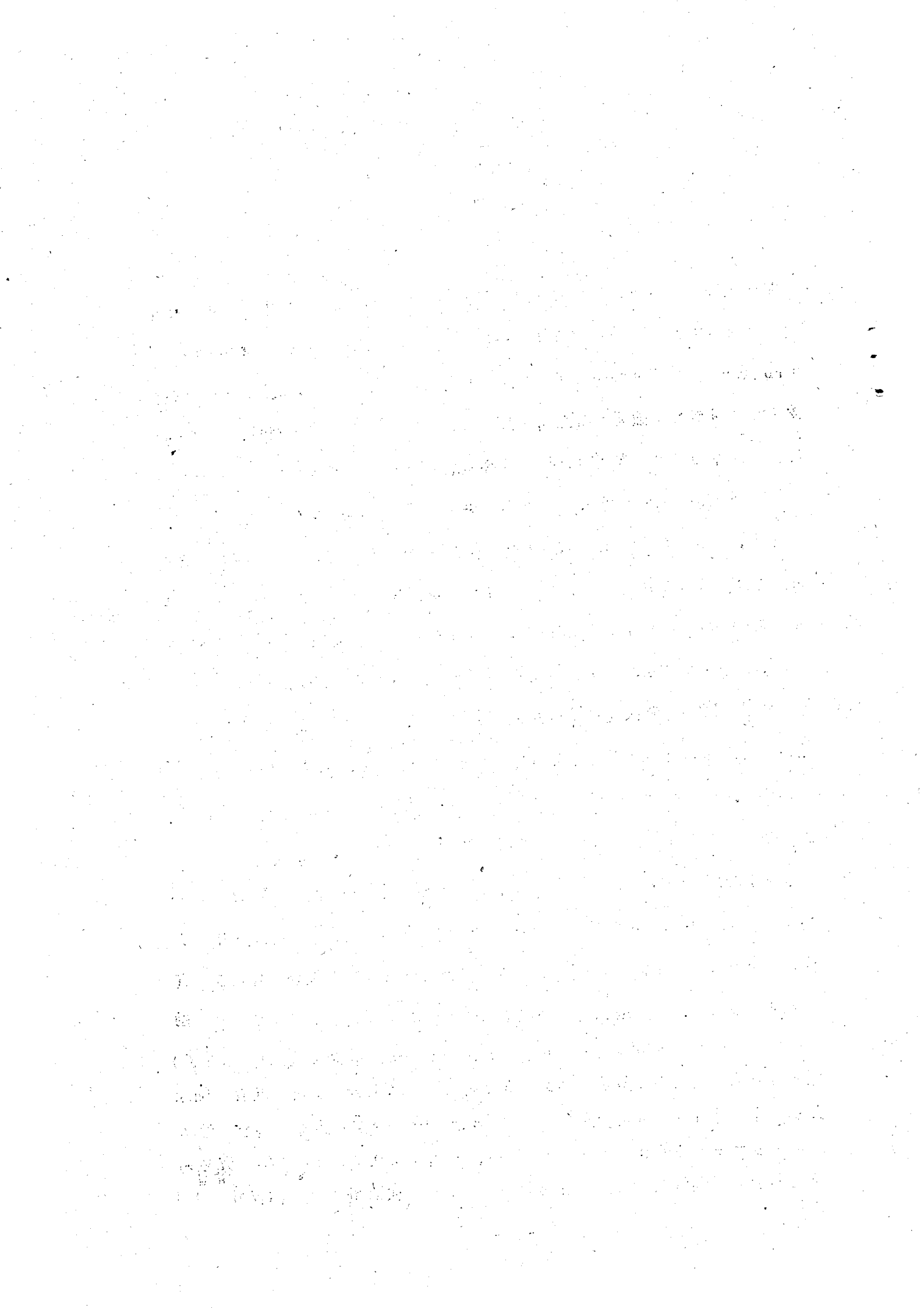
⑤ 技術移轉을 위한 工業技術情報銀行과 國際機構를 設立 할것.

第4次 UNCTAD總會는 마침내 1976年 5月 5日부터 31日까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世界 139個國 代表와 65個國際機關의 代表들이 參席한 가운데 開幕되었다. 主要議題는 一次產品, 製品 및 半製品, 多角貿易協商, 外債輕減과 開發財源의 移轉, 技術移轉, 後發開途國·島嶼國·內陸國에 對한 支援, 開途國의 經濟協力, 東西貿易 그리고 UNCTAD 強化問題이며 이를 5個의 實務委員會를 構成하여 討議하였다.

開途國들은 마닐라 宣言에서 보였던 團結을 誘示하며 특히 이들의 가장 重要한 要求事項인 一次產品綜合프로그램 (Integrated Program for Commodities) 과 開途國의 累積된 外債의 一般的인 救濟에 대하여 強硬하였으나 期待한 結果는 얻지 못했다. 그러나 現存 世界經濟의 南北對話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立場아래서로 양보한 結果 다음과 같은 決議文을 滿場一致로 採択하였다.

첫째, 開途國의 主要 関心事인 一次產品綜合프로그램을 다소 修正 採択하여 특히 共同基金設立에 관한 會議를 1977年 3月까지 다시 開催하기로 決定을 하고 그 이전에 準備會議를 열어 基金의 目的, 資金使用方法과 基金運用方法등을 討議하여 1978年까지 設立에 대한 모든 節次를 끝내기로 決定했다. 一次產品의 인덱세이션化는 先進國側의 反對가 심하여 南側이 양보함으로써 決議文에서 除外됐다. 중견의 UNCTAD總會에서는 南側의 양보로 決議案이 調整되었던 事實이 없었다는 점에서 注目을 끌었다.

둘째, 債務問題인데, 後發開途國이나 가장 어려운 나라 (MSAC-Most Seriously Affected Countries)에 대하여 마닐라 宣言에서 要求한 一般的 債務救濟와 債權國과 債務國會議의 開催는 제대로 貫徹되지 않았다. 開途國은 一次產品問題에서의 先進國의 양보를 勸案 여기에서는 債務困難에 빠진 開途國 (특히 後發開途國과 MSAC)의 救濟를 個別 要請에 따라 건설적으로 考慮할 것과 既存 國際會議 즉 파리의 南北會議에 1976年末까지 債務問題에 관한 앞으로의 指針을 마련할 것을 議決했다. 마지막으로 1977年 貿易開發理事會의 閣僚會議에서 債務問題에 대해 檢討한다는 內容이 삽입되었다.



2. 파리의 南北會談과 先進國頂上會談

1975年 12月 16日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國際會議場에서 開催된 國際經濟協力會 (CIFC-Conference 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¹¹⁾는 파리 南北會談으로도 불린다. 이 會議은 約 18個月의 긴 中斷狀態에 있다. 다시 再開되었으나, 1977年 6月 3日에 閉幕하고 말았다. 南北間의 現存問題를 UN의 舞台밖에서 現實적으로 對話可能한 國家들이 參加하여 妥協의 方途를 模索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轉機를 記錄했다고 할수있다. 이 南北會談이 열리게 된 背後에는 역시 世界的인 스태그플레이션現象을 惹起시킨 油類波動의 影響이 作用하였다.

OPEC 國家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影響으로 原油需要가 相對적으로 減少하자 輸出收入 增大를 위해서 先進圈과의 對話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產油國들은 恆時 非產油開途國들의 多數의 힘을 意識하기 때문에 石油問題만 論하자선 美國의 提議에 對해선 應하지 않고 石油를 包含한 모든 世界經濟問題까지도 議題에 包含시키자는 條件으로 石油生產國과 石油消費國間 會議을 開催하자고 한 프랑스大統領의 提案을 受諾하니 이것이 곧 파리의 南北會談인 것이다.

파리의 南北會談은 1次, 2次的 豫備會議을 거치게 된다. 1次 豫備會議은 1975年 4月 7日부터 15日까지 파리에서 開催되니 여기에는 10個國 代表가 參席하였는데 第1世界에서 美國, 日本, EC

그리고 第3世界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 알제리, 이란, 베네수엘라, 印度, 브라질 및 자이레 등이다. 이 會議은 時初부터 失敗로 끝나고 마는데, 美國의 原油問題를 集中的으로 討議하자는 案과 諸般 原資材에 관한 問題까지 包括적으로 討議하자는 開途國 및 프랑스의 案이 對立했기 때문이다. 開途國의 이러한 立場이 間接적으로 1975年 1月 OPEC 關係會議에서 나타났었고, 1975年 2月 다카르宣言 (Dakar Declaration adapted at the Conference of Developing Countries on Raw Materials)에서 充分히 第3世界의 意思가 表現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힘의 外交를 試圖했으나 失敗하고 말았다.

同年 9月 1日부터 9月 16日까지 열렸던 第7次 UN特別總會에서 키신저 美國務長官의 活躍으로 美國의 態度는 革命的이라 칭할 程度로 急變한다. 美國의 一次產品問題에 對한 肯定的인 姿勢와 또한 第7次 UN特別總會에서의 南北 兩陣營間의 協調적이고 折衝적인 雰圍氣로 인하여 곧 同年 10月 13日부터 16日까지 파리 南北會談을 위한 第2次 豫備會議가 다시 파리에서 열리게 된다. 여기서 本會議 開催는 同年 12月 16日로 決定하고 議題는 에너지以外 広範圍하게 다루며 原材料 開發과 金融등 4個 委員會를 設置하기로 合議를 보았다. 參加國은 先進圈에서 美國, 日本, EEC, 濠洲, 캐나다,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의 8個國과 開途圈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자이레, 알제리, 이라크,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니제리아, 멕시코, 브라질, 印度, 카메룬, 이집트, 잠비아,

아르헨티나, 자마이카, 페루, 파키스탄 및 유고슬라비아의 19 個國으로 모두 27 個國이다. EC가 EEC라는 單一代表를 내게 됨으로 實際로는 35 個國인 셈이다.

4 個 委員會는 76年 2月부터 會議를 개시 11月까지 모두 8 次의 正規月例會議를 가졌다. 에너지委員會에서 開途國의 油價實質 價値의 維持와 先進國의 世界經濟의 安定을 위한 油價概念이 맞섰고 一次產品委員會에서는 開途國側에서 第4次 UNCTAD總會 때처럼 共同基金의 創設, 一次產品의 價格 인덱세이션 및 緩衝在庫를 要求한데 대하여 先進圈은 消極的인 反應을 보였고 開發 및 公共 支援에 있어서도 별 進展을 못보았다. 開途國側은 NIEO以後 계속되어온 主張들을 반복했고 先進國들은 開途國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고 原油의 安定的인 供給을 確保하는데만 關心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兩側의 相反된 主張으로 南北會談이 거의 決裂直前까지 갔었지만 南北對話를 持續시킬 目的으로 先進圈이 얼마간 양보함으로써 同年 9月 2日 開幕되었다. 決議한 成果라고 하면 첫째, 一次產品 共同基金의 設置에 原則적으로 合議하고, 둘째, 最貧國支援을 위한 10億달러 特別計劃에 合議한 것 뿐이다. 結果적으로 보면 開途國은 그들의 意思를 貫徹시키지 못했고 先進國은 또한 必要한 石油의 安定的인 供給을 確約받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南北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UN을 舞台로 한 南北間의 會議는 어디까지나 南側의 要請에 의해서 開催되었고 石油波動이후

< 表 - 17 > 파리南北會談의 論議事項 및 結果

分 野	合 議 事 項	未 決 事 項
I. 에너지	① 商業的 意味에서의 에너지 利用可能性 및 供給에 관한 結論 및 勸告 ② 石油 및 GAS의 有限性 認識 石油를 基礎로한 에너지의 利用體系에서 보다 恆久的이고 再生possible한 에너지源으로의 利用 ③ 節約 및 에너지使用效率改善 ④ 모든 形態의 에너지의 開發 必要性 ⑤ 에너지分野에 있어서 國際 協力の 重要性	① 에너지 價格 및 에너지輸出所得의 購買力維持 ② 石油消費國의 國際收支赤字 補填을 위한 金融 ③ 海洋法會議에 있어서 資源에 관한 勸告 ④ 에너지에 관한 協議의 繼續
II. 一次產品 및 貿易	① 共同基金의 設立 ② 合成品과 競爭되는 天然產品을 위한 研究, 開發 및 其他 措置	① 開途國의 購買力確保 (Indexation) ② 補償融資에 관한 措置 ③ 現地加工 및 多樣化의 諸問題

分野	合意事項	未決事項
	<p>③마케팅 및 流通分野에 있어서의 國際協力</p> <p>④GSP의 改善 및 MTN에서 開途국에 대한 特惠가 보다 有利하게 되도록함.</p>	<p>④輸送, 商品去來에 있어서 開途국의 參加擴大</p> <p>⑤合成品의 生産制限 및 其他措置</p> <p>⑥一次産品 分野의 投資</p> <p>⑦一次産品綜合 Program (IPC, Integrated Program for Commodities)의 實施로 不利益을 받게 되는 最貧國 保護</p> <p>⑧IPC와 NIEO에 대한 關係</p>
Ⅲ. 關稅	<p>①ODA量의 擴大와 質의 改善</p> <p>②資源移轉의 一般的 問題에 直面하고 있는 個個 開途국에 대한 特別行動 計劃으로서 先進國이 10億 달러供與 (Special Program)</p>	<p>①開途국의 累積債務處理</p> <p>②工業化目的을 위한 調整 援助</p> <p>③製品 및 半製品市場에 대한 接近</p> <p>④多國籍企業問題</p>

分野	合意事項	未決事項
	③開途國에 있어서 食糧增 産 및 農業開發의 促進 ④開途圈의 Infrastruc- ture 開發에 대한 支援 ⑤開途國 工業化支援 ⑥工業所有權, 技術移轉, UN 科學技術會議에 관한 TDB (Trade Development Board) 決議의 實施	
IV. 金融	①國際金融市場 接近支援 ②外國人直接投資 準則 마련 ③開途國間 協力	①인플레이 對策 ②準則의 具體的인 內容 ③産油國金融資産의 價值 保全

에 파리南北會談 역시 南北間의 會議였던 것이다. 開途圈 77 그룹의 會議가 開途國의 意見을 규합시키고 그들의 集團行動을 結束시키기 위했던 것처럼 先進國들도 그들의 共同關心事를 議論하는 모임을 摸索하게 되니 이것이 곧 先進國頂上會談인 것이다.

1971年 닉슨大統領의 經濟緊急措置로 IMF体制가 崩壞되어 버리고 1973年末의 石油波動으로 保護貿易主義의 물결이 범람하게 된다. 石油波動이 일으킨 世界的인 不景氣로 各 西方先進국이 自國利益만을 위해서 隣近窮乏化政策을 追求하자 先進諸國을 오늘날 世界經濟의 主導的인 位置로 인도한 國際協力体制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더구나 OPEC 그리고 其他 開途國들의 資源主權 主張에 対処하기 위해서는 先進諸國의 새로운 次元에서의 結束이 要請되었다.

이러한 背景아래 프랑스의 지스카르 대스탱 大統領이 1975年 7月 헬싱키에서 開催되었던 유럽安保協力頂上會談에서 同年 11月 프랑스 랑부이에城에서 頂上會談을 갖자고 提唱했다. 랑부이에 頂上會談의 參席國들은 美國을 비롯한 英國, 西獨, 프랑스, 日本 그리고 이탈리아 등이었고, 當面하고 있는 世界景氣, 貿易, 通貨, 에너지, 一次產品, 開途國의 開發 등 先進 6個國의 共通問題點들을 幅넓게 意見交換한 결과 랑부이에 宣言을 發表하기에 이른다.

이 宣言에서 先進國들은 南北間의 相互依存性을 重視하고 南北間의 協調的 關係 및 相互理解의 改善은 各國 繁榮의 基礎라고 指摘하고 相互가 다 착실한 經濟成長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서로 協助的이어야 한다고 力說한다. 따라서 앞으로 開途國들을 돕기 위해서 신속하고 實際的인 措置가 必要한데 特히 開途國의 輸出所得安定을 위한 措置 및 國際收支赤字補填을 위한 支援措置를 取하고 最貧國에서 援助에 重點을 둘 것임을 밝힌다. 이외에도 變動換率制의 認定, 新國際라운드의 妥

結問題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頂上會談은 별로 內容없는 原則의 羅列이라는 評을 많이 받았다. 1次에 이어 2次 頂上會談은 푸에토리코의 생완에서 1976年 6月 27日부터 28日 兩日間에 걸쳐 열렸는데 이 때엔 캐나다가 追加로 參席했고, 南北問題에 관한 한 一次產品價格安定과 外債負擔輕減問題를 討議했었다. 3次 會談은 1977年 英國 런던에서 開途國에의 援助擴大와 一次產品價格의 安定化 및 緩衝在庫協定問題를 다루었었다. 4次 會談은 1978年 西獨 본에서 열렸는데 이 때 처음으로 開途國에 대한 財政支援에 第2世界 즉 코메콘(Comecon) 諸國의 參與가 促求된 점이 特記할만 하다. 5次 會談은 1979年에 東京에서 모였지만 지난 4次例와의 討議內容과 비슷했으며 단지 OPEC의 非産油開途國에 대한 支援이 첨가되었을 뿐이었다.

〈表 - 18〉 先進国經濟頂上會談의 經過 및 主要內容

	1 次	2 次	3 次	4 次
1. 日 時	75.11.5 ~ 11.17	76.6.27 ~ 6.28	77.5.7 ~ 5.8	78.7.16 ~ 7.17
2. 場 所	Rambouillet	San Juan	London	Bonn
3. 參加國	美, 独, 日, 仏, 英, 伊 (6 個國)	美, 独, 日, 仏, 英, 伊, 加 (7 個國)	7 個國 + EC 委員會	左 同
4. 開催時 經 濟 情 勢	① 同時的 不況 ② 保護主義 蔓延 ③ NIEO에 대한 先進國의 共同步調 緊要 ④ 資本主義의 위기 감	① 景氣浮揚을 위한 各國의 財政・金融 政策에 대한 意見調 整 必要性 ② 東西 및 南北問題에 관한 先進國의 戰略 統一必要性 ③ 換市動搖	① 76 年下半年부터 景氣回復鈍化에 대한 對策必要 ② 先進圈內에서 二極化 深化 (弱勢通貨國, 強勢通貨國) ③ 先進國의 保護主義 蔓延	① 世界經濟의 低成長 持續 ② 國際収支 不均衡深化 와 保護主義 擴散 ③ 外換市場動搖의 加速 化 ④ NIC 規制論 對干

	1 次	2 次	3 次	4 次
5. 共同声明内容	①인플레이션 없는 安定成長追求 ②保護主義배격 (東京라운드 77年 末까지 타결) ③안정된 變動換率制 実施 ④에너지節約 및 代替 에너지開發에 努力 産油국과의 協力	①安定成長 持續促求 ②國際相互協調強調 ③國際收支不均衡是正에 努力 (黒字國責 任論대꾸) ④保護主義배격 (輸出信用Guide line에 合意)	①安定成長 持續追求 (機關車論대꾸) ②國際收支 不均衡是正 (IMF의 役割強調) ③保護主義 배격 ④核Energy增大에 合意	①共同景氣 浮揚策 実施 ②石油輸入減縮 Energy消費節約과 代替Energy開發적 手段推進 ③保護貿易主義배격 (東京라운드 協商妥 結促求) ④國際收支 不均衡 是正促求 ⑤國際通貨 安定을 위해서 協力強化

<p>6. NIEO 關聯事項</p>	<p>(原則合意에만 그침) ① 開發國의 經商收支 赤字累積緩和을 위 한 補充的方法 (Complementary ways)을 통한 具體的 措置 早期 實施強調 a) 最貧國優先的配 慮 b) 開發國의 輸出 所得安定化와 財 政支援을 위해 國際協議機構를 통해 努力</p>	<p>(原則確認) ① 開發國의 Energy 開發을 支援 ② 先進國과 開發國間 의 協力이 相互尊 重의 原則에서 이 루어져야 할 것과 非生產的 對立을 止揚할 것을 申明 ③ 先進國의 協力は 開發國政策의 補完 的 次元에서 이루 어져야 함. ④ 國際機構를 통한 開發國支援努力繼續</p>	<p>(新國際經濟秩序에 관 한 大綱受諾) ① 非產油開發國의 Energy 開發計劃支 援強化(世界銀行의 役割希望) ② CIFIC의 成功的 終結을 위해 最大 努力 ③ 先進國의 對開發國 援助 및 財源供給 증대 ④ 開發國의 國際金融 市場에의 接近을 容易하게 支援</p>	<p>(先進國과 開發國 間의 共同責任分担 申明) ① 開發國의 Energy 開發計劃支援強化 (1年以內 具體 的計劃을 OECD 에서 作成키로合 意 世界銀行의 支援方途研究) ② 海外直接投資分野 에서 先進國 開 發國間의 協力強 化(OECD에서 協 力作業強化推進)</p>
-------------------------	---	--	---	--

1 次	2 次	3 次	4 次
<p>② 75.12.16 의 CIFE會議에 参 与하는 모든 国 家の 利益保護 및 增進約束</p> <p>③ 관련 國際機構等에 서 기존의 制度 的인 프레임워크에 따라 開途國과 協力을 強化할 것을 約束</p>	<p>⑤ IBRD 등 多者間融資 機關의 對開途國支援 強化</p> <p>⑥ 一次產品價格安定과 共同基金創設을 위한 協商의 成功的 妥結 을 위해 努力</p> <p>⑦ 開途國의 輸出은 先 進國市場을 교환시키 지 않는 方向으로 장려</p>	<p>③ 開途國에 대한 金融 支援強化</p> <p>a) 日本, 3年 이내 ODA 2倍로 擴大 約束</p> <p>b) COMECON 諸國의 對開途國支援促求</p> <p>④ 最貧國에 대한 讓 許的 援助擴大</p> <p>a) 世界銀行과 3個 地域開發銀行을 통 해 支援</p> <p>b) IDA의 財源擴 充支援</p> <p>⑤ 共同基金創設協商, 個 別商品協定締結을 위 해 努力</p>	

V. 展望과 關係改善

1974年 第6次 UN特別總會에서 議決된 新國際經濟秩序의 宣言과 行動綱領, 同年 12월에 採択된 UN經濟憲章, 그리고 1975年 9月 第7次 UN特別總會에 決議된 開發과 國際經濟協力에 관한 決議文 등이 開途國이 屢원하고 있는 新國際經濟秩序의 4大基本文獻이다. 이 文獻들이야 말로 第3世界가 새로운 秩序를 爲해 一致團結한 結果인 것이다. 內容을 보면 無責任하다고 할 만큼 너무나 거창한 項目들이 들어있어 쉽게 先進圈의 協助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듯 보이나 瑞典과 핀란드와 같이 南側의 要求에 副應하기 爲하여 最善을 다하겠으며 NIEO 宣言文의 趣旨를 절대 支持한다는 國家들이 있는 한 新秩序의 實現이 결코 꿈만은 아닌 것이다. 英國, 美國, 日本, 그리고 西獨과 같이 NIEO의 宣言을 多數의 橫暴라고 비난하던 國家들도 第7次 UN特別總會이후 開途國들의 意思를 무시할 수 없다는 反省을 보여 왔고 實際로 實質的인 合意를 目標로 努力하기 시작한 것이 事實이다.

1. 新國際經濟秩序의 実績과 展望

가. 一次產品問題

一次產品綜合프로그램 (IPC)¹²⁾ 은 1976年 第4次 UNCTAD 總會에서 南北側에 爲해서 公式的으로 採択되었다. IPC의 目標은

開途國輸出所得의 安定的 向上과 先進國의 安定的 資源確保에 있는 것으로 이 目標의 實現을 위해서 共同基金의 創設과 補償融資가 主要手段이 된다. 特히 共同基金(Common Fund)은 開途國의 輸出比重이 높은 18個 品目을 對象으로 緩衝在庫(Buffer Stock)를 設置하여 一次產品價格을 安定시키기 위한 制度인 것이다.

共同基金 創設에 관한 決議는 1976年에 했지만 南北間의 基本立場의 差異때문에 1978年 11月 第3次 交渉會議에 가서야 意見對立을 크게 解消시킴으로써 2가지점에서 우선 共同基金出帆의 基盤을 구축했다. 첫째 南北側은 共同基金을 一次產品의 價格安定을 위한 緩衝在庫設置(第一窓口)외에도 一次產品의 多樣化와 市場開拓, 研究開發 流通構造改善 등(第二窓口)을 위해서도 使用하기로 하였다. 둘째, 政府直接輸出額規模의 大幅縮小와 政府의 直接輸出에 의한 基金造成方式에 대해 南北側은 原則的인 合意에 도달했다.

1979年 제네바에서 열린 第4次 共同基金創設 交渉會議에서는 結實이 맺어졌다. 이 會議에서는 基金使用用途, 基金輸出規模 및 輸出方法, 基金運營의 票決權配分 및 議決方式 등에 대해서 基本骨格을 表 19와 같이 마련했다.

個別商品協定에 있어서는 NIEO宣言이후 既存個別協定들의 改正作業들이 있었을 뿐 새로운 個別商品協定이 없다가 1978年에 들어와서 天然 고무協定締結을 위한 交渉會議가 활발하게 進行되었으나 意見差異로 별 進展이 없었다. 그러나 1979年 봄에 主要先進國과 EC 및 기타 消費國들간에 主要爭點에서 合意를 보게 되었다.

<表 - 19 >

第 4 次共同基金創設 交渉會議의 主要合意內容

合議事項	內 容
共同基金의 用途区分	①第 1 窓口：一次產品價格을 위한 緩衝在庫設置에 使用 ②第 2 窓口：市場開拓，研究開發，輸送改善，販賣，流通構造改善 및 多樣化等に 使用
共同基金의 規模	總規模：7.5 億달러 ①第 1 窓口의 資金 (i) 總 額：4 億달러 (ii) 釀出內訳：均等釀出 0.8 億 (各國 最小均等配分額 100 萬달러) 그룹別配分 2.2 億달러 (經濟規模基準) 金融機關借入 1.0 億달러 ②第 2 窓口의 資金 (i) 總 額：3.5 億달러 (ii) 釀出內訳：均等釀出 0.7 億달러 會員國들의 自發的 出捐 2.8 億달러
基金의 運營方式	①國際一次產品機構 (ICO) 를 設置하여 Pool 形式으로 預置 ②會員國들의 票決에 따라 運營
預託率	個別商品協定額의 33.3% 를 共同基金에 預託
票決權配分	①開途國 47% ②自由世界先進國 42% ③소련 및 동구 8% ④中共 3%
議決方法	議題의 重要度에 따라, 3/4, 2/3 贊成으로 議決

資料：國際經濟研究院，1978 年の 國際經濟年報 1979, p. 174

<表-20>

國際商品協定の現況

商品協定	発足年度	有効期間	主管機構	加盟国
小麦協定	1949	1976.7 ~ 1978.6	國際小麦理事会 (IWC)	輸出国 9+EEC 輸入国 40+EEC
설탕協定	1954	1978.1 ~	國際설탕機構 (ISO)	輸出国 35 輸入国 18
朱錫協定	1956	1976.7 ~ 1981.6	國際朱錫理事会 (ITC)	輸出国 7 輸入国 20
커피協定	1963	1976.10 ~ 1982.9	國際커피機構 (ICO)	輸出国 42 輸入国 24
코코아協定	1973	1975.10 ~ 1979.9	國際코코아機構 (ICCO)	輸出国 18 輸入国 27
올리브油協定	1958	1963.12 ~ 1978.12	國際올리브油理事会 (IOOC)	輸出国 12 輸入国 7

資料:表19와 同一 p.175.

主要内容을 보면 첫째, 總備蓄規模를 55万吨으로 하고 基準價格을 210싱가포르센트로 정했다. 둘째로, 만약 市場價格이 基準價格의 $\pm 15\%$ 水準에 이르면 自由롭게 緩衝在庫를 放出 또는 備蓄할 수 있도록 하고, $\pm 20\%$ 水準에 이르면 반드시 放出 또는 備蓄을 實施하도록 規定하였다. 셋째 總基金規模는 4.2億달러로 하고, 協定遵守 与否를 감시하기 위해 國際天然 고무理事會 (IRC)를 設定키로 決定했다.

開途國이 주로 輸出하는 19個의 商品全体가 다 個別商品協定을 이룰 수 있으면 나람직스러우며 또한 이러한 方向으로 趨勢가 움직이고 있으니 鼓舞的이라 하겠다. 共同基金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合意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實質的인 出帆이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陣痛이 예상된다. 특히 基金醜出額의 國別配分, 基金造成寄与率과 基金運營票決權比率間의 不均衡, 票決權의 國別配分 및 對象品目的 選定 등에 상당한 異見衝突이 예기되는 것이다.

最近 石油波動이후 南北間의 相互依存度가 그 重要性을 認定받기 시작하자. 一次產品價格의 安定 뿐만아니라 輸出所得의 安定化制度 (STABEX: Stabilization of Export Earnings)의 創設이 論議되기 시작했다, 이制度는 一次產品의 輸出額이 一定基準額을 下廻하는 경우 先進國이 그 減少分을 無償 내지 低利融資를 통하여 補償해 주는 것이다. 1978年中에는 美國, 日本, EC가 各各 ASEAN과의 經濟協力의 一環으로 STABEX의 創設可能性을 研究 論議하기 시작했다. 美國은 ASEAN과 78年 8月에 워싱턴에서

會合을 가져 EC와 日本에 競争的으로 一次産品の 輸出所得安定을 위해 個別商品協定締結과 共同基金創設에 적극 努力할것을 合意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日本과 EC도 ASEAN과 會合을 가져 美国과 競争하니 資源外交의 競争이 갈수록 보다 치열해 질 것이므로 長期的으로는 南側에 有利하게 展開될 것으로 展望된다.

나. 開途貧國의 負債蕩減問題

1976年 第4次 UNCTAD總會에서 開途圈은 다음과 같은 負債問題解決方案을 提示하였다.

① 世界의 最貧國 29個國에 供與한 公共借款은 無償으로 轉換한다. (약 35億달러로 推計)

② 1人當 GNP 400달러이하의 開途諸國에 供與된 公共借款의 元利金償還을 5年間 유예해준다.

③ 先進圈의 諸政府가 保證하여 巨額이 된 短期商業借款은 商業借入利子率을 適用하여 15年내지 25年間의 長期融資로 轉換한다.

④ 國際金融機構(例:世界銀行)는 元利金償還을 위하여 貸出을 增大시킨다.

以上과 같은 開途圈의 要求에 적지않은 先進國들이 同情的으로 받아들여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와 스위스 등 4個國은 最貧國들의 負債를 약 4億달러程度 蕩減해 주었다. 美国은 처음부터 一括免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個別的으로 處理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表明했다. 이러한 外債蕩減問題를 論議하기 위해서 UNCTAD의

貿易開發理事會에서는 1978年 3月 6日부터 10日까지 제네바에서 最低開發貧國의 負債免除과 油類波動으로 타격을 받은 非產油開途諸國의 漸增되는 負債의 元利金償還問題가 討議되었다. 그러나 先進諸國들의 同情의 對象이 되는 나라들 만을 골라서 累積債務解消을 위한 條件變更내지 追加援助 등으로 效果的인 措置를 取하겠다는 程度에 그치고 말았다.

DAC (OECD의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推計에 따르면 1977年中 對非產油開途國 資本協力規模는 1976年에 비해 16.3% 增加한 總 578億달러에 達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 21> 對非產油開途國 資本協力推移 單位: 10億弗

	1974	1975	1976	1977
1. 公共開發支援	15.86	19.99	20.07	21.14
D A C	11.30	13.59	13.66	14.70
O P E C	3.45	5.52	5.59	5.74
共 産 圏	1.11	0.9	0.82	0.70
2. 民間資本	19.24	29.53	29.70	36.68
D A C	16.71	26.79	27.08	34.80
O P E C	2.44	2.65	2.54	1.85
共 産 圏	0.09	0.09	0.08	0.03
3. 資本協力總額	35.10	49.52	49.77	57.82
D A C	28.01	40.38	4.74	49.50
O P E C	5.89	8.17	8.13	7.59
共 産 圏	1.20	0.97	0.90	0.73

資料: DAC, Development Cooperation, 1978 Review

* 純支払額基準

<表-22>

그룹별 ODA 供与推移

單位：10 億 \$

	1973	1974	1975	1976	1977
D A C	9.4(78.3)	11.3(71.5)	13.6(68.0)	13.7(68.1)	14.7(69.7)
O P E C	1.3(10.8)	3.4(21.5)	5.5(27.5)	5.6(27.9)	5.7(27.0)
共 産 圏	1.3(10.8)	1.1(7.0)	0.9(4.5)	0.8(4.0)	0.7(3.3)
合 計	12.0(100.0)	15.8(100.0)	20.0(100.0)	2.0(100.0)	21.1(100.0)

資料：DAC, Development Co-operaton, 1978 Review

* 純支払額基準

<表-23>

그룹별 ODA/GNP 比率

單位：%

	1973	1974	1975	1976	1977
D A C	0.30	0.33	0.35	0.33	0.31
O P E C	1.41	2.01	2.71	2.29	2.01
共 産 圏	0.09	0.07	0.05	0.03	0.04

資料：DAC, Development Co-operaton, 1978 Review

1976年의 0.2% 增加率에 비하면 상당한 進展이라 하겠으나 同增加分の 内訳을 보면 대부분이 유로·크레디트市場을 통한 民間資本協力이고 開途国이 NIEO에서 要求하는 公共開發支援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GNP 比率 0.7%에 훨씬 미달되는 0.31%만 達成되었으며 이것도 1974年 NIEO의 宣言當時의 0.33%보다는 減少趨勢를 보였다.

非産油開途国の 債務累積을 短·中期的으로 볼 때 油價上昇에 따르는 經常収支赤字의 拡大와 借入增加로 85년까지는 激增한다는 것이 一般的인 展望이며 따라서 85년까지 國際金融市場의 一部에서는 非産油開途国の 債務가 1조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¹³⁾ 이에 대한 對策으로 現在 IMF를 中心으로 한 國際機關들이 對開途国 融資拡大를 도모하고 있으며, IMF는 새로운 油價 퍼실리티 (Oil Facility)의 創設을 檢討하고 있으며 世界銀行,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IDB (International Development Bank)는 各各 400億달러, 120億달러, 800億달러의 增資를 檢討하고 있어 이를 公共金融機關의 對開途国 融資가 期待된다. 그러나 이같은 金融퍼실리티의 增加豫想에도 불구하고 開途国은 大幅的인 經常収支의 赤字補填과 債務償還을 위한 借入必要額을 원활하게 충당하지 못하고 多數의 債務再偏 (Debt rescheduling) 내지 不履行이 일어날 것이라는 展望이어서 先進圈의 도움도 必要하지만 開途国 自体의 債務管理 能力의 提高도 絶실히 要望되고 있다.

다. 貿易特惠問題

특히 貿易面에서 中心的인 役割을 맡아온 GATT는 無條件 最惠國待遇를 基本原則으로 發足한 이래 6次에 걸친 一般關稅引下 協商을 實施하여 先進國의 輸入數量制限의 철폐, 各國의 非關稅障壁 (NTB)의 輕減과 철폐를 계속 推進해 왔다. 1971年 Nixon의 緊急 經濟措置後 GATT體制의 動搖가 오자 1973年9月 東京 GATT關係會議에서 關稅引下와 非關稅貿易障壁을 철폐하여 世界貿易을 擴大하고 특히 그 동안의 GATT協商上에서 發生한 開途國의 불만을 解消할 目的으로 東京라운드協商을 시작했다. 그러나 時初부터 石油事態로 말미암은 經濟混亂때문에 難航을 거듭해 오다가 1978年 4月 12日 先進國들 사이에 所謂 GATT의 第7次 多國間貿易協商 (MTN: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즉 東京라운드가 假調印된 것이다.¹⁴⁾

開途國의 關心事는 원래 發表되었던 東京라운드의 協商原則에 있던 것이다. 協商原則에 의하면 先進國은 關稅 또는 其他 貿易障壁의 緩和 및 撤廢에 대하여 開途國의 相互主義를 期待하지 않으며 開途國의 輸出增大를 위한 特別措置를 강구하는 동시에 開途國의 關心品目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더불어 一般特惠關稅制度의 유지 및 改善을 위하여 努力할 것 등이다. 이러한 原則은 바로 NIEO에서 要求한 事項들이었다. 그러나 協商過程에서 이 같은 原則은 油類波動以後 줄곧 世界的인 스태그플레이션과 國際收支赤字를 憂慮해 오던 先進國들이 新保護貿易主義의 물결에 휩쓸

리는 바람에 퇴색되고 만 것이다. 開途國들은 아직도 先進國들의 關稅引下스케줄에서 開途國의 關心品目 特히 纖維, 皮革, 고무 및 木製品을 양허품목에 포함시키고 關稅 또한 大幅引下시킬 것을 要求하고 있다. 開途國들은 特히 選別的인 세이프 가드(Safe-guard)에도 큰 關心을 보이고 있는데 이 制度가 도입되면 開途國의 輸出商品을 겨냥 實施될 것을 憂慮하고 있다. 日本과 美國이 同制度에 대해서 消極的인 贊成의 뜻을 보였으나 EC는 本協商의 妥結에 關係없이 이를 強行할 뜻을 비치고 있다.

熱帶商品 및 農產品輸出에 있어서도 開途國은 先進國의 保護主義的인 農業政策때문에 絶望的이라고 비난한데 대하여 東京라운드의 貿易協商委員會에서는 農產品에 대한 協商을 계속할것을 권고하겠다는 말로만 그친 것이다.

以上과 같이 南側은 여전히 南北問題의 核心的인 이슈들에 神經을 集中시키고 있는 反面 北側은 先進圈의 主要經濟問題 즉 國際通貨의 安定, 貿易收支不均衡의 縮小, 인플레이션이 없는 成長, 新興工業國(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에 대한 規制, 그리고 必要한 石油과 一次產品의 安定的인 供給에만 보다 더 많은 關心을 모아 오고 있었다. 60年代와 70年代를 통한 UN의 開發戰略이란 것이 主로 先進國에 의한 對開途國支援增大라는 觀點에서 南北問題를 解決하려 해왔었고 NIEO의 定立要求는 國際的인 政治經濟的 現實을 도의시한 開途國의 一方的인 要求였었기 때문에 先進國들은 自發的으로 呼應하지 않았다. 게다가 開途國內부의 分派

作用 역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韓國을 위시한 台灣,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같은 先進國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新興工業國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비롯한 所謂 最低開發國(第4世界: The Fourth World Countries)들, 그리고 OPEC諸國과 같은 石油富國들의 重要關心事가 다 各各 다를 뿐만 아니라 南北의 諸問題에 대한 重要性도 각기 다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南側이 要求하는 既存秩序의 改編은 매우 어려우나 지금까지의 趨勢를 볼때 急激한 變化없이 南側의 立場이 貫徹되는 方向으로 서서히 世界가 움직여 나갈 것이다.

最近 前西獨首相 빌리·브란트(Willy Brandt)를 議長으로 하는 國際開發問題委員會(Commiss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Issues: Brandt Commission)¹⁵⁾가 16名の 各國政府와 政府外의 指導級 人士를 委員으로 構成하여 發足を 보았다.

이 委員會는 世界銀行의 總裁가 國際開發의 여러 가지 重要한 問題에 관하여 南北兩側이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함을 개탄한 나머지 完全히 獨立된 非政府機關으로 先進圈과 開發圈에서 要員을 차출하여 懸案問題를 研究하고 南北 兩側間의 理解를 促進시키기 위해서 1977年 9月 28日 公式적으로 創設되었고 同年 12月 9日에 第1次 會議을 開催하였다. 이 委員會는 第3次 UN 10個年開發戰略을 作成하기로 되어 있으며 基本方向이 60年代와 70年代의 UN開發戰略과는 달리 先·後進國間의 相互利益의 增進이라는 觀點에서 実行 가능한 具體的 手段과 目標를 提示할 것으로 豫見되므로 여기에 全世界가 期待를 걸고 있는 중이다.

<表 - 24 >

主題別 南北側의 立場

主 題	南 側 的 要 求	北 側 的 立 場
<p>1. 現實認識</p> <p>1) NIEO</p> <p>2) 現行國際經濟秩序의 評價</p> <p>3) 經濟發展을 위하여</p>	<p>• 當 為</p> <p>• 南側의 不平等을 固定化시키는 秩序</p> <p>• 南側의 積極參與要望</p> <p>• 北側의 수탈을 제거</p>	<p>• 一方的 要求</p> <p>• 不平等을 固定시킨다고 보는 理由不明確</p> <p>• 現行秩序가 非自由화된 秩序이므로 不公平發生은 당연한 것임.</p> <p>• 南側自體의 努力이 緊要</p>
<p>2. 貿易 · 資源 一般</p> <p>1) 天然資源의 恆久主權</p> <p>2) 生産者카르텔</p>	<p>• 天然資源의 自體開發利用</p> <p>• 自國의 統制權</p> <p>• 外國支配에 대한 損害 補償</p> <p>• 自國法에 의한 紛爭解決</p> <p>• 生産國카르텔의 設立強化</p>	<p>• 基本的으로는 認定</p> <p>• 技術, 經營能力, 판매 루트 의 취약으로 인한 生産 減少우려</p> <p>• 高價格으로 인해 效率低下</p> <p>• 最貧國에 不利</p>

主 題	南 側 的 要 求	北 側 的 立 場
3) 貿易特惠 4) 多国籍企業規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關稅引下 및 非關稅障壁의 제거 (東京라운드) • 輸送販賣分野의 南側 Share 擴大 • 現象維持 原則의 철폐 • 資源開發 및 마케팅支配를 비난 • 根本적으로 착취기관으로 인식 • 內政干涉排除 • 果實送金規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原則에는 合意 • 內政干涉여부는 多国籍企業의 自由-北側政府와 關聯無 • 多国籍企業은 南側에 資本技術移轉-所得向上에 기여
3. Energy 1) 油價의 實質價值保障 2) 에너지濫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具體的措置要求 • 北側의 에너지過多消費 비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世界經濟全體問題와 關聯하여 檢討 • 認定 • 代替에너지 開發, 自國內油田開發등
4. 一次產品 1) 價格 Index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入品價格에 연결하여 輸出品價格調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生産者카르텔의 形成이 前提이나 非效率的임

主 題	南 側 의 要 求	北 側 의 立 場
2) 一次產品 綜合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緩衝在庫設置 • 價格安定共同基金設置 • 補償融資改善擴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原則에 合意
5. 開發・金融 1) 公共開發 支援 2) 工業化 3) 技術移轉 4) 累積債務 5) SDR L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년까지 GNP의 0.7% 目標達成 • 贈与分은 ODA의 90% 이상 • 非條件化 (Untying) • 今世紀末까지 世界工業生産中 南側의 Share를 25%까지 제고 - LLDC 특별배려 • 이分野에 대한 直接援助擴大 • 技術移轉 Code 作成 • 技術移轉 促進을 위한 諸關聯機構의 設置 • 一括救濟 • SDR과 開發援助와의 링크요망 (SDR의 配分을 IDA에 讓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無條件은 困難, Basic needs 充足을 위한 公여는 可能 • 非現實的 一方的要求 • Manpower의 訓練이 先決問題지 技術移轉 自体가 시급한 것이 아님 • 個別救濟 (北側中 스웨덴 등은 一括救濟養成) • SDR의 信認低下 • SDR의 과잉발행으로 流動性增加 → 인플레이 要因

2. 韓國과 新國際經濟秩序

우리나라經濟는 輸出主導型 經濟開發戰略에 힘입어 高度의 成長을 持續한 結果 貿易規模는 300 億달러台, 1人當 GNP 1,500 달러台를 바라보는 中進國의 대열에 서있고 앞으로 80 年代末쯤이면 完全自立經濟達成과 高度産業社會 그리고 自主國防體制를 確立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急進的으로 高度化되어 가는 韓國經濟를 新國際經濟秩序와 關聯하여 볼때 2가지의 相反된 特徵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韓國은 賦存資源이 거의 없어 重化學工業化過程을 통하여 産業構造를 高度化시키고 있는 段階에서 石油를 비롯하여 大部分의 自然資源을 第3世界에서 輸入해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經濟는 開途國型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先進國型이라고 하겠다.

둘째, 韓國은 先進諸國의 新保護貿易主義를 배경하고 그들의 斜陽産業과 우리에게 比較優位가 있는 商品에 대해서는 NIEO가 要求되는것 처럼 先進諸國들의 産業構造改編을 主張해야 하는 立場에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두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NIEO의 各項目에 대해서 選別的으로 처치하여야 하고 더구나 北韓과 政治·外交的 角逐을 世界舞台에서 벌이고 있는 現實을 고려할때 効率的이고 伸縮性있는 政策을 定立해 나가야 할 것이다.

長期的으로 우리經濟는 急速히 成長해 나갈 것이며 第3世界의 自然資源에 대한 依存度는 더욱 높아질 것이 自明하다.

아무리 에너지와 資源을 節約한다고 할지라도 우선 資源의 確保가 이루어진 다음의 이야기인 것이다. 資源開發을 위한 投資가 大部分 第3世界에서 이루어질 것이 分明하므로 이들의 問題를 詳細히 把握하고, 이들의 苦憫을 잘 理解해야만 이들과의 關係改善이 성취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政府의 第3世界에 대한 政經外交는 한마디로 消極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第3世界에서 重要な 位置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諸국과의 修交關係를 보면 1978年現在 北韓과만 修交한 곳이 20個국, 韓國과만은 6個국. 그리고 南北韓 쌍방이 修交하는 나라가 21個국이다.¹⁶⁾ 非同盟會議만 해도 北韓은 會員으로 1975年 리마에서 加入했으나 우리는 아직껏 非同盟國會議에 加入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물론 非同盟이 反對하는 美國과 軍事同盟을 맺고 있다는 事實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들의 關心과 努力이 不足한 탓도 크다 하겠다. 이점은 아프리카 諸국과의 修交關係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經濟力을 最大限 利用하여야 할 것이다. IMF가 발간하는 貿易의 方向이라는 統計月報에 依하면 1979年 現在 우리의 輸出總額은 150億달러를 넘어섰고 이중 40億달러를 開途國에 輸出하고 있는 反面에 北韓은 同年總輸出額이 8億달러에 불과하고 그중 5億5千달러를 開途國에 輸出하고 있는 實情이다. 輸入面에서도 우리는 北韓과 비교할수 없을만큼 압도적 差異를 보인다. 즉 우리가 開途國에서 同年 56億달러를 輸入한 反面에

<表-25>

韓國의 地域別

	輸 出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世界	3,225	4,460	5,081	7,715	10,047	12,718	15,055
先進國	2,769	3,684	3,892	6,056	7,432	9,482	11,075
産油國	78	168	336	717	1,242	1,387	1,646
非産油開發國	374	575	831	933	1,362	1,827	2,328
아프리카	24	77	167	148	206	249	242
아시아	264	357	452	620	826	1,104	1,476
유럽	31	51	155	17	33	89	127
중동	1	4	8	100	143	179	192
西半球	54	85	49	48	155	205	291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1980. 6月

<表-26>

北韓의 地域別

	輸 出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世界	155.88	300.74	348.90	240.90	354.74	611.40	811.55
先進國	119.27	172.16	100.94	137.58	105.61	178.55	262.22
産油國	3.06	58.28	105.77	34.45	183.87	333.42	435.84
非産油開發國	33.55	70.30	82.10	68.87	65.26	99.43	113.49
아프리카	1.79	9.43	3.14	3.12	6.79	13.35	14.70
아시아	14.09	23.11	27.98	39.07	30.69	36.93	48.62
유럽	16.76	34.93	23.57	18.12	16.04	35.68	36.07
중동	0.76	2.19	26.49	6.68	6.90	6.93	7.07
西半球	0.15	0.64	1.01	1.88	4.84	6.54	7.03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1980. 6月

總輸出入額 (1973 ~ 79)

單位：100만달러

輸			入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4,240	6,852	7,274	8,774	10,815	14,976	20,313
3,442	4,958	5,262	6,201	7,810	11,384	14,729
404	1,124	1,324	1,826	2,312	2,606	3,748
385	708	679	711	688	946	1,735
21	35	40	63	72	66	158
313	443	556	440	491	638	1,182
27	84	30	13	21	36	78
11	3	1	32	15	34	52
14	144	51	164	89	173	264

總輸出入額 (1973 ~ 79)

單位：100만달러

輸			入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350.03	818.57	591.34	513.34	401.53	489.83	655.47
256.58	701.58	474.57	290.26	256.87	313.51	431.65
3.92	6.39	7.26	113.60	10.56	12.58	20.13
89.53	110.60	109.51	109.45	134.10	163.74	203.69
1.11	6.43	0.46	0.25	7.22	14.43	11.00
13.55	32.73	20.74	28.92	37.13	78.82	118.77
21.35	36.79	45.76	37.72	23.42	28.17	30.65
4.02	3.58	8.93	6.42	5.84	6.73	7.40
49.50	31.07	33.62	36.14	60.49	35.59	35.87

<表-27>

韓國의 地域別

	輸				出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世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先進國	85.9	82.6	76.6	78.5	74.0	74.5	73.5	
産油國	2.4	3.8	6.6	9.3	12.4	10.9	10.9	
非産油開途國	11.6	12.0	16.4	12.1	13.6	14.4	15.4	
아프리카	0.7	1.7	3.3	1.9	2.0	2.0	1.6	
아시아	8.2	8.0	8.9	8.0	8.2	8.7	9.8	
유럽	1.0	1.1	3.0	0.2	0.3	0.7	0.8	
중동		0.1	0.2	1.3	1.4	1.4	1.3	
西半球	1.7	1.9	1.0	0.6	1.5	1.6	1.9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1980. 6月

<表-28>

北韓의 地域別

	輸				出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世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先進國	76.5	57.2	46.1	57.1	29.8	29.2	32.3	
産油國	2.0	19.4	30.3	14.3	51.8	54.5	53.7	
非産油開途國	21.5	23.4	23.6	28.6	18.4	16.3	14.0	
아프리카	1.1	3.1	0.9	1.3	1.9	2.2	1.8	
아시아	9.0	7.7	8.0	16.2	8.7	6.0	6.0	
유럽	10.8	11.6	6.8	7.5	4.5	5.8	4.4	
중동	0.5	0.7	7.6	2.8	1.9	1.1	0.9	
西半球	0.1	0.2	0.3	0.8	1.4	1.1	0.9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1980. 6月

輸出入比率 (1973 ~ 79)

単位： %

輸			入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1.2	72.4	72.3	70.7	72.2	76.0	72.5
9.5	16.4	18.2	20.8	21.4	17.4	18.5
9.1	10.3	9.3	8.1	6.4	6.3	8.5
0.5	0.5	0.6	0.7	0.7	0.4	0.8
7.4	6.5	7.6	5.0	4.5	4.3	5.8
0.6	1.2	0.4	0.1	0.2	0.2	0.4
0.3			0.4	0.1	0.2	0.3
0.3	2.1	0.7	1.9	0.8	1.2	1.3

輸出入比率 (1973 ~ 79)

単位： %

輸			入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3.3	85.7	80.3	56.5	64.0	64.0	65.9
1.1	0.8	1.2	22.1	2.6	2.6	3.1
25.6	13.5	18.5	21.3	33.4	33.4	31.1
0.3	0.8	0.1		1.8	2.9	1.7
3.9	4.0	3.5	5.6	9.2	16.1	18.1
6.1	4.5	7.7	7.3	5.8	5.8	4.7
1.1	0.4	1.5	1.3	1.5	1.4	1.1
14.1	3.8	5.7	7.0	15.1	7.5	5.5

韓國의 地域別

<表 - 29 >

	輸 出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世界	98.6	38.3	13.9	51.8	30.2	26.6	18.5
先進國	99.2	33.0	5.6	55.6	22.7	27.6	16.8
産油國	79.1	117.0	99.2	113.6	73.2	11.7	18.7
非産油開發國	98.0	53.8	44.6	12.3	46.0	34.1	27.5
아 프리 카	119.7	225.3	117.0	- 11.3	38.9	21.0	- 2.7
아 시 아	72.2	35.4	26.7	37.0	33.3	33.7	33.6
유 럽	168.4	65.5	202.2	- 89.0	35.8	167.4	42.8
중 동		276.9	86.2	1,123.5	- 41.9	25.9	7.0
西 半 球	307.8	56.9	- 42.8	- 1.3	222.6	32.2	42.3

資料 : IMF, Direction of Trade, 1980.6 月

北韓의 地域別

<表 - 30 >

	輸 出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世界	55.2	92.9	16.0	- 31.0	47.3	72.4	32.7
先進國	55.9	44.3	- 6.5	- 14.5	- 23.2	69.1	46.9
産油國	24.4	1,804.6	81.5	- 67.4	433.7	81.3	30.7
非産油開發國	56.3	109.5	16.9	- 16.2	- 5.2	52.4	14.1
아 프리 카	752.4	426.8	- 66.7	- 0.6	117.6	96.6	10.1
아 시 아	66.0	64.0	21.1	39.6	- 21.4	20.3	31.7
유 럽	47.9	108.4	- 32.5	- 23.1	- 11.5	122.4	- 1.1
중 동	44.9	188.2	1,109.6	- 74.8	3.3	0.4	2.0
西 半 球	150.0	326.7	57.8	86.1	157.4	35.1	7.5

資料 : IMF, Direction of Trade, 1980.6 月

輸出入伸長率 (1973 ~ 79)

単位： %

輸			入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68.1	61.6	6.2	20.6	23.3	38.5	35.6
69.4	44.0	6.1	17.8	26.0	45.7	29.4
61.5	177.9	17.8	38.0	26.6	12.7	43.8
65.8	83.8	-4.2	4.8	-3.2	37.5	83.4
66.0	65.8	16.7	55.1	15.3	-8.8	141.0
62.7	41.4	25.7	-21.0	11.7	29.8	85.4
65.0	212.8	-64.2	-57.0	60.8	73.8	115.7
179.2	-74.2	-54.2	2,388.5	-53.4	122.7	53.7
86.9	963.4	-64.8	221.7	-45.5	93.9	52.9

輸出入伸長率 (1973 ~ 79)

単位： %

輸			入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97.8	133.9	-27.8	-13.2	-21.8	22.0	33.8
72.7	173.4	-32.4	-38.8	-11.5	22.1	37.7
73.5	63.0	13.4	464.7	-90.7	19.1	60.0
243.6	23.5	-1.0	-0.1	22.5	22.1	24.4
2,675.0	479.3	-92.8	-45.7	2,788.0	99.9	-23.8
296.2	141.5	-36.6	39.4	28.4	112.3	50.7
33.9	72.3	24.4	-17.6	-37.9	20.3	8.8
209.2	-10.9	149.4	-28.1	-9.0	15.2	10.0
825.2	-37.2	8.2	7.5	67.4	-41.2	0.8

北韓은 미미한 2億달러 程度에 그친다. 이렇게 擴大一路에
있는 經濟紐帶關係는 政治 外交的인 利益追求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参 考 文 献

論文：

- Bell, Daniel, "The Future World Disorder: The Structural Content of Crisis " Foreign Policy, No. 27, Summer, 1977
- Bergsten, C. Fred, "The Response to third World," Foreign Policy, No. 13-17, 1973-75
- Campbell, M. "Keeping track of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borrowing," Financial Times, August, 1976
- Corbet, H., "Raw Materials and the third World's Stake in the Tokyo Round," Pacific Community, 1975
- Corea, Gaman:, "North, South Dialogue at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Affairs, vol 53 No. 2, April, 1977
- Drozdiak, William, "North-South Dialogue," European Community, March, 1977
- Enders, T.C., "OPEC and the Industrial Countries: the Next Ten Years," Foreign Affairs, vol 53, 1975
- Friedheim, R., Durcu, W.J., "The International Seabed Resources Negotiation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1 No2. Spring 1977

Gardner, R.N., "The Hard Road to World Order," Foreign Affairs,
April, 1974

Houthakker, H.S., Magee, S.P., "Income and price Elasticities
in World Trade," Review of Economic Statistics, vol.
VI, 1969

Hughes, H., "The External Debt of Developing Countries,"
Finance and Development, Dec., 1977

Krölller, E., "The Debt Problem of Developing Countries :
A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OECD Observer, Jan., 1978

Overholt, W.H., "The Rise of the Pacific Basin," Pacific
Community, 1974

Timmer, Marcus, "Reshaping the International Order,"
Aussen Politik, vol 28, 1st quarter, 1977

U.N.,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Dec.,
1974

,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Sep.,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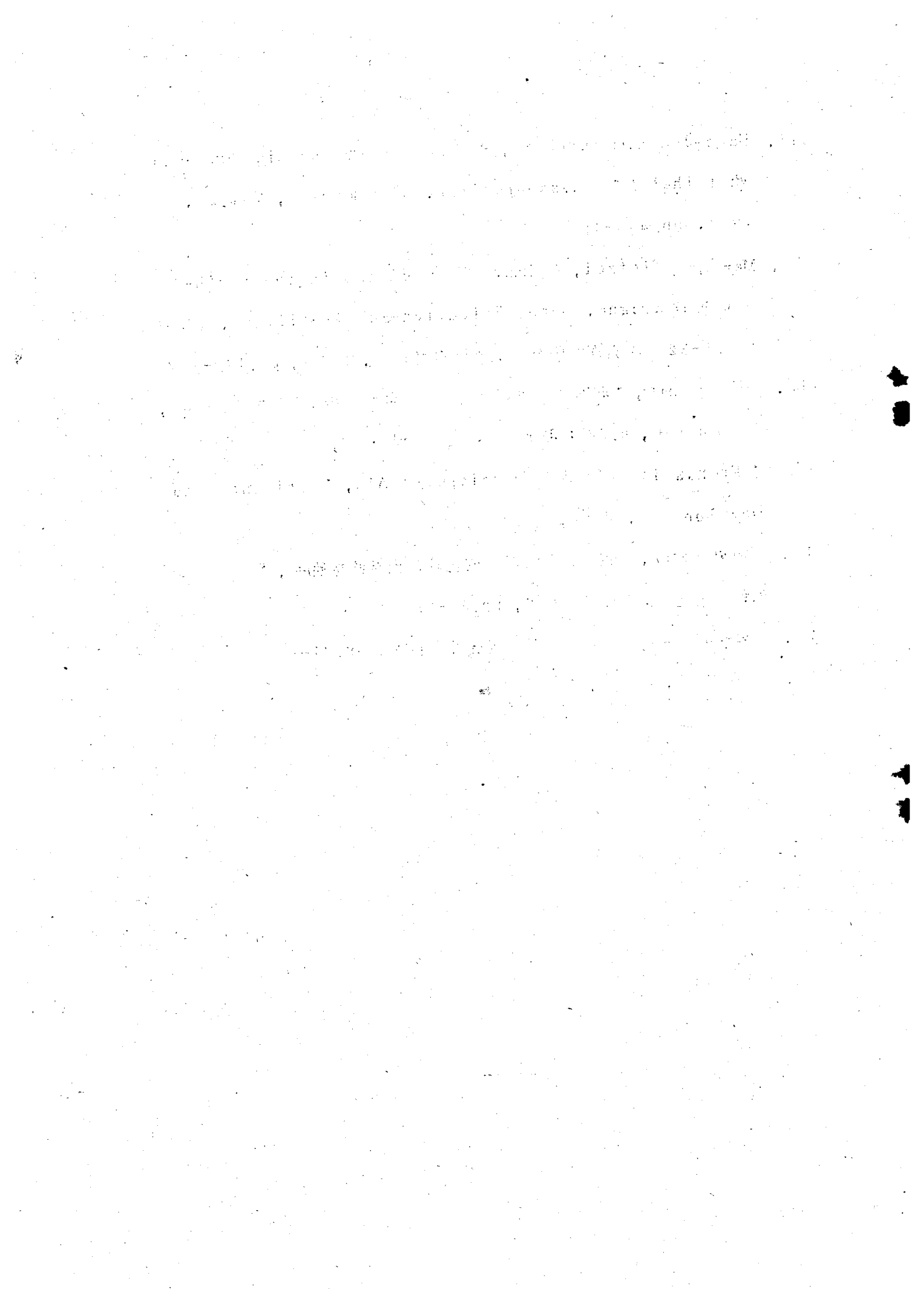
, The Special UN General Assembly Session Resolution on
Raw Material and Development, — "Decla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國際經濟研究院，戰後 國際經濟 30 年史，①國際貿易篇，1977
，戰後 國際經濟 30 年史，②通貨・金融篇，1977
，戰後 國際經濟 30 年史，③經濟協力篇，1977
金 泰 東，新國際經濟秩序，第三世界的 反亂，1978

脚 註

1. L.B.Pearson, Partners in Development, 4th ed, London, 1970
Ch2 : 國際經濟研究院, 戰後 國際經濟 30年史, 經濟協力篇, 서울 1977 pp.31-36
2. 表-3의 内容
3. 國際經濟研界院, 國際經濟 30年史, pp.49-54
4. 金泰東, 新國際經濟秩序, 泰光文化社, 1978 pp.142-147
5. John Pincus, "Trade, Aid and Development" New York, Mc Graw-Hill, 1967, p.373 : UNCTAD, "Proceedings of the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New York, 1964
6. 國際經濟研究院, 南北問題의 現況과 展望, p.6
7. 金泰東, op.cit., p.149
8. Ibid., p.153
9. U.N. "Toward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 Prebish Report", 1964, p.6
10. Gamani Corea, "North-South Dialogue at the United Nations" : UNCTAD and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 International Affairs, Vol.53.No 2 April, 1977 : 國際經濟研究院, 國際經濟 30年史, pp.68-74

11. Hans-Joachim Burchard, "The North-South Dialogue-and what then ? " Aussenpolitik, 4th quarter, Vol.28, 1977, pp.403-415
12. Manfred Tietzel, Primary Commodities in the North-South Dialogue, Bonn, Friedrich-Ekert-Stiftung, 1979 pp.79-82 國濟經濟研究院, 國際經濟年報, 1977, pp.172-177
13. 韓國外換銀行, "非產油 開發途上國의 累積債務," 外換銀行日報, 1980年3月, p.57 : Joris Jos.Voorhoeve, "Trends in Official Development Aid," Finance and Development, June, p.14
14. 韓國外換銀行, "東京라운드의 成立과 世界貿易秩序," 外換銀行月報, 1979年7月, pp.19-25
15. 國際經濟研究院, 南北問題의 現況과 展望, pp.71-95
16. 北朝鮮研究, "外交," p.25



<表-16> UNCTAD 에 있어서의 南北間의 問題提起 및 合意狀況

	第1次 UNCTAD (1964年3月 제네바)	第2次 UNCTAD (1968年2月 뉴델리)	第3次 UNCTAD (1972年4月 산디아고)	第4次 UNCTAD (1976年5月 나이로비)
◎一次產品 商品協定	—商品協定の 原則 ○商品別原則, 輸出 國 또는 輸出入國 에 의한 緩衝在庫 의 設치	—19品目을 對象으로 한 國際的 行動計劃 ○一般商品協定の 檢 討	○國際코코아 協定の 締結促進	—一次產品綜合프로그램 ○共同基金 및 個別 商品 交渉의 타임 테이블, 緩衝在庫 의 國際的 協定
價格 市場接近	○衡平, 安定된 價格 ○市場接近의 保證		○集中的 檢討 ○集中的 檢討	○인플레이션을 考 慮한 價格協定 ○MTN, 一般特惠 의 改善
◎特 惠	○政府間그룹에 의한 檢討 (製品 半製 品에 대하여)	○一般·非相互·無 差別特惠의 早期 實施	○未實施國의 早期 實施 (全品目을 對象으로 한다는 開途國 意見考慮)	○一般特惠의 改善
◎製品·半製品 市場接近 工業化協力 多國籍企業	○關稅障壁의 輕減· 撤廢, 非關稅障壁 의 檢討		○非關稅障壁의 檢討 輕減撤廢狀況의 調査 ○國際下請의 推進 ○制限的 商慣習에 대한 調査	○非關稅障壁의 輕減·撤廢 ○開途國工業化를 위한 國際協力 ○制限的 商慣習 의 規制
◎援 助 量 質	○先進國國民所得의 1%	○分母를 GNP 로 한 다.		
債務救済	○問題提起	○DAC, UN援助目標 와 再確認 可能 한 限 Unite化	○DAC 新條件勸告의 早期合意 —設untie의 早速 合意	○個別的 케이스의 가이드라인檢討
國際收支	○國際機關에 의한 審査合意	○IMF·世銀의 研究 계속. 個別的 救濟 措置時의 國際協力		
	○補足融資案의 檢討 補償, 融資限度 擴 大的 檢討	○補足融資案의 檢 討 계속. 補償融 資制度에 關한 開 發途上國의 要求에 配慮	○補足融資案의 策定	
◎通 貨 參 加 SDR 링크		○問題提起	○IMF에 의한 檢討 IMF 20 個國委員 會의 設置	
◎技術移轉	○技術移轉立法 措 置之 研究		○技術移轉을 위한 國際立法의 研究, WIPO와 UNCTAD에 의한 工業所有權의 共同研究	○技術移轉 Code of Conduct의 草案作成 促進
◎LLDC等 LLDC	○問題提起	○特別措置의 必要 性, 識別基準의 檢討	○特別措置의 檢討 · 識別基準의 彈力 運用研究	○特別措置檢討, 特別基金에 대한 讓出
內陸國, 島嶼國	○問題提起	○專門家그룹의 設置	○識別基準의 研究	○特別措置檢討
◎開發途上國間協力	○問題提起	○貿易擴大 및 經 濟統合에 關한 開途國의 意圖表明 同支持 宣言	○貿易擴大·經濟協 力·經濟統合에 關한 決議	○先進國·國際機 構에 의한 協力 措置

